

Google 그룹스

CAMEL

Jeong Cheol

2001. 5. 22 오전 10:36

게시된 그룹: han.arts.music.progressive

The Unofficial CAMEL Korean Site

<http://my.netian.com/~gamaksae/camel>

[김상규, LAZY...@hitel.net, 96.1]

Fantastic Traveller for More 20 Years
CAMEL

◆ Before The Travelling

1990년대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진보 음악 군의 흐름 가운데에서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예전 슈퍼 그룹들의 득세가 아닐까 한다. 많은 평론가들이나 팬들에 의해 암울했던 시기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80년대의 프로그레시브 록 씬과는 대조적으로 9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그룹들이 비교적 충실한 활동을 재개하면서 옛 팬들을 들뜨게 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지난 94, 95년에 걸쳐 있었던 PINK FLOYD와 KING CRIMSON의 재등장은 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도 뜻 깊은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젠 상업적으로도 공룡이 되어 버린 PINK FLOYD는 (비록 Roger가 빠졌긴 했으나) 스튜디오 앨범인 [The Division Bell]에 이어, 전설의 앨범 [The Dark Side Of The Moon]의 전곡을 라이브로 옮겨서 화제가 되었던 깜박이 전구가 달린 독특한 아트워크의 더블 앨범 [Pulse]로 팬들을 매료시킨 바 있었고, Fripp의 사단 KING CRIMSON은 미니 앨범 [Vrooom]과 신보 [Thrak]의 2부작을 94년 말과 95년 초에 걸쳐 터뜨리면서 강해진 사운드와 여전한 실험성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바 있었다. 비록 초기의 실험적인 이미지가 퇴색되긴 하였지만 스매시 히트를 노리는 그룹 GENESIS 역시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YES도 재결성되어 전성기에 못지 않은 음반 [Talk]를 발매하여 옛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CAMEL이 새 앨범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소문은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위에서 열거한 슈퍼 그룹들과는 다른 그룹에 미친 영향력이나, 그 Name Value에서 다소 처지는 그룹일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팬들의 그들에 대한 애정은 위의 그룹들과 버금가는, 실로 각별한 것이었다. 그들의 84년도 작품인 [Stationary Traveller]는 팝 팬들에게도 필청의 음반이 되어 버렸으며, 최근 한 심야 프로의 집계를 통해서도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바 있다.

91년 [Dust And Dreams] 이후 잠잠했던 CAMEL이, 다시금 그들의 팬들과 더불어 환상의 세계로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The Trace of Camel

▶ 셀프타이틀 앨범 [Camel] (73)

Brew라는 그룹 출신이었던 Andrew Latimer(guitar)와 Doug Ferguson(bass), Andy Ward(drums)의 기존 3인조에 Melody Maker지의 구인 광고를 보고서 찾아온 중견 키보디스트인 Peter Bardens가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던 그룹 CAMEL은 1973년 3월, 셀프타이틀 데뷔작을 MCA 레이블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Andrew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Camel Production을 통해 CD로 재발매)

흥겨운 공가의 리듬과 Peter의 멜로트론 연주가 포문을 여는 첫 트랙인 <Slow Yourself Down>과 BARCLAY JAMES HARVEST풍의 <Mystic Queen>, 그들의 대표작으로 92년에 가진 라이브에서도 연주되었던 <Never Let Go>는 초기 CAMEL의 음악적인 성격을 대변해

주는 곡들로서 기억해 둘만 하나, 필칭의 음반이라고까지 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르는 듯. Latimer의 애수 적인 블루지한 스타일과, Bardens의 재즈 적인 리듬감 넘치는 Instrumental 스타일의 대조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두 멤버의 조화와 대비는 초, 중기의 CAMEL 사운드의 특징이 된다.

▶ 신기루와 같은 신비한 이미지 [Mirage] (74)

Decca레이블의 언더그라운드 뮤직 전문 레이블이었던 Deram으로 이적하여 제작된 2집 [Mirage]는 현재의 CAMEL의 골수 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음반으로, [Greasy Truckers]라는 편집 실황 앨범에서 이들과의 첫 인연을 가지게 된, 명 프로듀서 David Hitchcock이 제작을 맡았다.

담배 상표를 떠올리게 하는 예쁜 일러스트 뒤에 숨겨진 곡들을 보면 우선 그들의 최고 명곡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대곡 <Lady Fantasy>가 눈에 띄이며, 그 외에도 애잔한 소품인 <Supertwister>와 재즈 적인 리듬감이 돋보이는 <Freefall>등이 귀에 들어온다.

본 앨범은 L. A.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반응 덕택에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어 빌보드 앨범 차트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 결과 CAMEL은 향후 1년에 걸쳐 BARCLAY JAMES HARVEST와 함께 하였던 영국 및 프랑스, 독일 등을 순회하는 대규모의 유럽 공연은 물론 WISHBONE ASH와 함께 미국 투어까지 펼치는 정력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다소 모험적으로 대곡 취향의 곡을 수록하였던 [Mirage]의 대단한 반응에 힘입어 이들은 다음 앨범에 대한 방향 설정에 있어 컨셉트 형식의 앨범을 기획하기에 이른다.

▶ 동화 세계의 탐구 [The Snow Goose] (75)

Paul Gallico라는 인물의 문학 작품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된 3번째 앨범은, 약간의 스킷을 제외하곤 전체가 연주곡인 작품으로 Latimer/Bardens 콤비에 의해 단 며칠만에 작곡이 되었다. (한편 앨범의 컨셉트를 제공하였던 비 흡연 가인 Paul Gallico는 [Mirage]의 재킷을 보고서 담배 회사 소속의 그룹인 줄 알고서 이들을 냉대하였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모두 16부분의 단편으로 구성이 된 [The Snow Goose]는 Rhayader와 Frith라는 두 마리의 백조의 우정과 사랑에 모티브를 두고 있으며 역시 David Hitchcock이 프로듀서를 맡아 주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David Bedford의 조력에 힘입은 오케스트레이션을 배경으로 동화적인 세계가 수려하게 펼쳐지는 사랑스러운 앨범으로서, 컨셉트 앨범의 특성상 특정 싱글 보다는 앨범 전체를 듣는 것이 감상의 포인트라고 하겠다.

CAMEL은 앨범 발매 직후인 75년 4월부터 그 해 말까지 유럽 및 미국 투어를 감행하였으며, 그 해가 저물어 갈 무렵 Melody Maker지가 결산하였던 The Brightest Hope(기대주 부문) 1위에 선정되면서 기분 좋게 그 해를 마감한다.

▶ 요정, 꿈, 광기 [Moonmadness] (76)

신비한 세계의 탐구를 시도하였던 [Moonmadness]는 전작이었던 [The Snow Goose]에 비해 보다 많은 보컬이 가미되었고, 재즈 록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데 그룹의 창단 멤버인 Andrew, Peter, Doug, Andy의 4인조 진용으로서의 최후의 작품이 된다. 프로듀서로는 Rhett Davies와 CAMEL의 멤버들이 공동으로 맡았는데, 이들은 만족스러운 양질의 사운드를 뽑아 내 주었던 Rhett에게 현재까지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 군사들의 행진곡을 연상케 하는 <Aristillus>라는 장난스런 연주곡으로 시작하여,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바 있었던 <Song Within A Song>, Doug의 이펙트 입힌 몽환적인 보컬을 들을 수 있는 <Spirit Of The Water>, Andrew의 flute이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Air Born>, 재즈 록 적인 성향을 견지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 <Lunar Sea>등의 놓칠 수 없는 트랙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한편, 본 앨범의 발매 직후 영국과 미국의 순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그룹의 내부에선 Doug Ferguson이 자신의 그룹인 HEAD WAITERS의 결성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표명한다. 멤버간의 불화가

아닌 음악적 견해 차이로 탈퇴한 Doug의 자리는 HATFIELD AND THE NORTH와 CARAVAN을 거쳤던 Richard Sinclair에 의해 메워졌으며 이러한 멤버의 교체와 더불어 초기 CAMEL의 음악적인 성향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 세션맨들의 참여 [Rain Dances] (77)

77년 초에 녹음이 시작되어, 그 해 8월에 공개된 새 앨범은 [Rain Dances]로 명명되었다. Sleeve에는 이 앨범을 축구를 좋아하였던 친구 Doug Ferguson에게 바친다고 하여 옛 멤버에 대한 이들의 여전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Mel Collins의 관악기 세션, Brian Eno의 키보드 세션 등 이전엔 없었던 여러 쟁쟁한 뮤지션들의 도움을 입은 [Rain Dances]는 팝적인 <Highway Of The Sun>, 재즈 록적인 <Unevensong>, Brian Eno의 무그 신디사이저와 Fiona Hibbert의 하프가 돋보이는 서정적 연주곡 <Elke>, Martin Drover와 Malcolm Griffiths의 관악 세션이 돋보이는 또 하나의 재즈 록 풍의 넘버 <Skylines>에 이르기까지, 여러 장르에 대한 시도들을 보여주는 과도기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다.

이 앨범은 CAMEL의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우선, 자신들의 표현 영역을 확대시키고자 여러 세션맨들을 기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점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한 사운드의 변화로서 이전의 Latimer/Bardens 콤비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운드의 열쇠가 멤버 전원에게 고루고루 분산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프로듀서는 역시 Rhett Davies와 CAMEL의 멤버들이 맡아 주었다.

▶ 첫 라이브 [A Live Record] (78)

영국 투어 이후 다소의 공백기를 가지는 동안 CAMEL은 이전에 녹음했었던 공연 실황 테이프의 먼지를 털어 내고서 중간 평가 겸,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자 6집 [A Live Record]를 1978년 4월에 공개한다.

더블 라이브 앨범의 묵직한 분량으로 완성된 본작은 CAMEL의 초기 네 멤버들의 라이브와 멤버 교체 이후의 라인 업으로서의 라이브를 같이 수록하고 있어 신, 구 멤버들의 연주를 비교하며 들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진용으로 녹음한 옛 곡들인 <Never Let Go>나 <Song Within A Song> <Lunar Sea> 등에선 새 베이시스트 Richard Sinclair가 다소 건조한 목소리로 보컬을 맡아 주고 있어 Andrew Latimer의 보컬이 담겨 있는 옛 스튜디오 앨범과는 또 다른 맛을 풍긴다.

이 가운데에서도 단연 압권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1975년 10월, 런던 Royal Albert Hall에서의 실황을 담은 David Bedford 지휘의 London Symphony Orchestra와의 [The Snow Goose] 앨범의 전곡 협연을 담은 두 번째 디스크와 대표곡 <Lady Fantasy>의 라이브 연주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관중들의 함성이나 환호에서 느껴지는 현장감은 그다지 크진 않으나, 스튜디오가 아닌 라이브 현장에서 그들의 대곡을 완벽하게 재현해 낸 CAMEL의 연주력과 호흡이 놀라운 작품이다.

▶ Peter Bardens의 최후 작품 [Breathless] (78)

라이브 앨범의 발매 이후 새로운 멤버로서 이전 게스트였던 Mel Collins를 정식으로 가입시켜 녹음 작업에 들어간 CAMEL은 78년 10월에 그들의 7번째 작품인 [Breathless]를 발매하였다.

이 작품의 녹음이 끝날 무렵이었던 78년 8월 경, CAMEL 사운드의 양대 핵심 가운데 한 명이었던 Peter Bardens가 돌연 탈퇴를 선언하여 그들의 팬을 놀라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이전 작품들 가운데에서 느껴졌었던 Peter 스타일의 연주 중심의 재즈적 어프로치는 <Echoes> 정도의 싱글에서나 느껴질 따름이고, 평이하면서도 서정적인 보컬곡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내에선 <Rainbow's End>가 크게 사랑을 받은 바 있었다.)

탈퇴를 선언한 Peter Bardens의 공석은 GARY MOORE BAND와 CARAVAN을 거친 Jan Schelhaas에 의해 메워졌으며 이후 진행되었던 영국 및 월드 투어에선 Richard Sinclair의 사촌인 - 역시 CARAVAN 출신의 - Dave Sinclair가 연주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CAMEL과 CARAVAN을 합성시킨 듯한 단어인

CAMEL이란 별명을 그룹의 이름으로 장난 삼아 붙이기도 하였다. 비록 본국인 영국에선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한 작품이었지만, 4년전엔 일본의 CAMEL Fan Club에서 실시한 바 있었던 여론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인기를 얻어 CAMEL's Best Album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경력을 지닌 앨범이다.

▶ 오로라 빛의 환상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 (79)

[Breathless] 투어를 마친 후인 1979년 초, 베이스 주자인 Richard Sinclair와 Sax의 Mel Collins가 서로간의 의견 충돌로 그룹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동반자로서 THE CASUAL BAND 출신의 Collin Bass를 새로운 베이스스트로, HAPPY THE MAN 출신의 Kit Watkins를 또 한 명의 키보드스트로 맞이하게 된 CAMEL은, 솔로 뮤지션으로도 알려져 있는 Rupert Hine을 새 프로듀서로 영입하고서 신보의 제작에 돌입한다.

"나는 갑자기 두 명의 건반 주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보다 모험적인 시도가 가능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때로는 우리 밴드의 이름이 CAMEL이 아니라 CAMEL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는 CARAVAN의 멤버들이 들어 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달콤한 음악을 해 보려는 시도 탓이었죠."

위와 같은 Andrew Latimer의 이야기는 8번째 앨범인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를 통해 실현되었는데 우주인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채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의 재킷이 상징해 주듯 앨범 전체에 걸친 우주적인 오로라 빛의 사운드를 다수의 건반 악기들이 표현해 주고 있다.

국내에서 자주 전파를 타곤 했던 <Hymn To Her>는 위에 설명에 부합되는 대표곡이며, 단 한 차례의 연주만으로 완성되었던 또 하나의 대곡인 <Ice>는 CAMEL의 중반기를 대변할 만한 명곡으로 기억해 둘 만 하다. (이 곡에서는 GENESIS의 리더인 Phil Collins의 세션 드러밍이 추가 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이 곡을 들어보았던 Phil Collins가 완벽한 곡이라며 자신의 드럼 연주를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취소되었던 에피소드가 있기도.)

▶ 또 하나의 야심찬 컨셉트 앨범 [Nude] (81)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 발매 직후의 공연을 마친 시기였던 1980년 초, 단 한 장의 앨범에만 참여하였던 Kit Watkins가 자신의 솔로 활동을 위하여 CAMEL을 등졌고, 10CC의 키보드 주자였던 Duncan Mackay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녹음에 들어간 앨범은 [Nude]이다.

아니! 웬 Nude...? 라고 생각할 법한 앨범의 타이틀은 예상과는 달리 일본군 병사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앨범의 내용은 주인공이 2차대전이 끝난 직후, 한 무인도에서 29년간 격리 된 채 살아왔다가 우연히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환영을 받으며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새 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자신이 있던 섬으로 되돌아간다는 컨셉트에 기초하고 있다.

1981년의 벽두, Abbey Road Studio에서 완성되었던 본 앨범은 대부분의 곡이 Andrew에 의해 작곡되었고 여류 작가인 Susan Hoover가 가사를 쓴 다소 Andrew 개인적인 취향의 앨범이었는데, 이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여러 뮤지션들이 게스트로 동원되었다.

Cello나 일본 고유의 악기인 Koto등이 독특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산만한 감도 없지 않다. 허나, 앨범 전체의 통일성과는 별도로 Cello의 선율이 온 몸을 휘감는 듯한 <Drafted>나 이후의 라이브등에서도 자주 연주되곤 하는 <Lies>같은 곡은 80년대의 CAMEL을 대변하는 멋진 곡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초반기에 가지고 있었던 음악에 대한 진지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며, 앞으로의 그들 앨범에서 경계된 가사를 쓰게 되는 Susan Hoover를 발굴하였다는 사실에 의의를 둘 만하다. 이어 10주년 기념 베스트 음반인 [Chameleon]이 공개되었다.

▶ 獨 [The Single Factor] (82)

1982년 CAMEL은 10집 [The Single Factor]를 발매하였다. 앨범의 제목은 Andrew 자신이 홀로 그룹에 남게 된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타이

틀로 명명되었는데 그가 모든 곡의 작곡을 맡고 있고, Susan Hoover가 여러 곡의 가사를 담당해 주고 있다.

참여한 게스트 뮤지션들로는 이전 멤버였었던 Peter Bardens의 우정 어린 참여를 비롯하여, 역시 구 멤버였던 Mel Collins가 연주를 돕고 있으며, 이후 CAMEL의 베이스리스트로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David Paton, 세션으로 이름을 날린 명 드러머 Simon Philips, CURVED AIR의 초기 키보드 주자였던 Francis Monkman, ALAN PARSONS PROJECT의 객원 보컬이었던 Chris Rainbow, 전 SPIROGYRA의 드러머였던 Dave Mattacks 등을 포함하는, 총 10여명의 베틀들이 함께 해주었다.

국내에서는 <Heroes> <Selva> <Lullabye>의 서정적인 3부작이 특히 사랑 받았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Peter Bardens풍의 <Sasquatch>를 이들 자신들은 대표곡으로 꼽고 있다. (이 곡의 녹음 시에는 Peter Bardens가 건반 세션으로 참여해 주기도.)

멤버 교체의 혼란 때문이었을까?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범작이다.

▶ CAMEL의 히트작 [Stationary Traveller] (84)

[The Single Factor] 이후 약 1개월간에 걸친 10주년 기념 콘서트 투어를 마친 CAMEL은 1년간의 준비를 거친 새 앨범 [Stationary Traveller]를 84년 초에 발표한다.

그룹 결성 10주년 투어에 동행하였던 David Paton(bass,vocal), Paul Burgess(drums), Chris Rainbow(vocal)와 Mel Collins가 연주에 참여하였고 특히 네덜란드 그룹 KAYAK의 리더로서 서정적인 사운드를 주도했었던 인물인 Ton Scherpenzeel이 영롱한 키보드를 담당해 주었던 본작은 Andrew의 작곡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팝적인 취향의 작품으로 재킷에서 입김을 뿜으며 쓸쓸히 서 있는 한 여인의 서늘한 인상을 담은 듯한 타이틀 트랙 <Stationary Traveller>에선 Andrew Latimer의 감동적인 기타 연주를 들을 수 있으며, 국내 팬들에 의해 크게 사랑 받았던 발라드인 <Long Goodbyes>역시 앨범의 가치를 격상시켜 주고 있다. 이외에도, Chris Rainbow의 상쾌한 보컬 실력을 들을 수 있는 뉴웨이브 스타일의 <Cloak And Daggerman>이나 최근 CF에도 사용되고 있는 연주곡 <Pressure Points>등 빼 놓을 수 없는 10곡의 트랙이 각각의 빼어남을 과시하고 있다.

정통 프로그레시브 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CAMEL의 최고작이라는 의견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국내에서의 CAMEL의 인기 물이의 대부분은 이 앨범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스매쉬 히트 앨범.

▶ 두 번째 실황 앨범 [Pressure Points] (84)

[Stationary Traveller]앨범의 발매가 시작된 84년 4월, CAMEL은 'Stationary Traveller CAMEL Europe 1984'라는 이름으로 총 29회에 달하는 유럽 순회 공연을 행하였다. 특히 84년 5월 14일. 그들의 홈타운인 런던 Hammersmith Odeon에서의 공연은 손질을 거쳐서 12번째 앨범인 [Pressure Points]라는 이름의 앨범과 동명의 레이저 디스크로 발매되었다. (최근 CAMEL Production을 통해 비디오 카세트로도 재발매 되었다.)

LD로는 약 90분 가까이 수록곡을 담고 있으나. 그에 비하면 앨범은 수록곡도 몇 곡 제외되었으며 레퍼토리 역시 국내 팬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것이 못 되기에, (하지만 Collin Bass의 플랫리스 베이스 연주가 눈에 띄는 첫 곡 <Pressure Points>는 라이브 버전으로 길게 편곡되어 수록되었는데 원곡과는 또 다른 신선 감을 제공한다.) 가능하시다면 앨범보다는 레이저 디스크나 비디오로 꼭 접해 보시기를 바란다.

[Pressure Points]발매 이후 한동안 CAMEL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이들의 음악이 본격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던 즈음이 바로 이 때였다. 그 무렵 영국의 CAMEL 팬 클럽에서는 이들의 해체 설이 조심스럽게 나돌기 시작하였고, 이는 약삭빠른 일본의 몇몇 레코드 사들이 [CAMEL-Compact Compilation] 등의 몇몇 편집 앨범들을 발매함으로써 거의 기정 사실화되어 버렸다.

▶ 6년만의 부활 [Dust And Dreams] (91)

약 6년여간의 침묵, 필자가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CAMEL 팬 클럽에서 이들의 신보 발매 예정 소식을 접하게 된 시기는 1991년 초의 일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레이블인 CAMEL Production에서 발매한 앨범이라는 설명과 더불어.

13집으로 공개된 [Dust And Dreams]은 John Steinbeck의 1939년도 소설 '분노의 포도'에서 영감을 얻은 컨셉트 앨범으로 Andrew Latimer 개인이 대부분의 작사, 작곡에 간여하였으며 Susan Hoover가 몇 곡의 가사를 담당하였다. 앨범을 접하기 전에는 영국인인 Andrew Latimer가 미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할까 하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뚜껑을 열고서 확인한 즉,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적절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생각되나, 키보드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기존의 그들의 팬들에겐 CAMEL답지 않다는 색다른 느낌을 던져 준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앨범 전체에 걸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곡의 흐름과 분위기에 치중한다면, 충분한 음악적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Cloak And Daggerman>을 연상시키는 <Mother Road>가 가장 눈에 띄는 트랙으로 생각되고, <Rose Of Sharon>, <Go West> 등의 보컬곡들이 연주 중심의 다른 트랙들 보단 상대적으로 귀에 오랫동안 남는다.

▷ 몇 장의 Official Bootleg 시리즈와 Compilation Album

CAMEL Production에서 1년에 두어 차례 발간하는 Newsletter를 통해 이들의 소식을 접한 바로는, [Dust And Dreams] 이후의 CAMEL은 그다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잠잠한 와중에서도 자신의 레이블인 CAMEL Production을 소유하게 된 Andrew Latimer는 몇 장의 공식 해적 음반들(Official Bootlegs)을 발매하게 된다. 그 중 첫 번째로 공개되었던 [Camel On The Road 1972] (92)는 Andrew Latimer가 초기 라인 업이었던 Andy, Peter, Doug을 회상하는 글과 더불어 1972년 데뷔 초기 당시의 실황을 담은 앨범이었다.

한편 이듬해에 발매된 2CD [Never Let Go] (93)는 1992년 그들이 가졌던 20주년 기념 투어를 녹음한 것으로 오버 더빙의 손질을 거치지 않은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가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다. Andrew Latimer의 기타, 플롯, 보컬, Collin Bass의 베이스 연주, 10CC와 JETHRO TULL을 거친 Paul Burgess의 드럼 연주, Mickey Simmonds의 키보드 연주. 4인조 구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풍성한 사운드가 깨끗한 음질로 녹음되어 있는 본 더블 앨범은, [Dust And Dreams]의 전곡이 라이브로 연주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지난 20년간의 CAMEL의 대표 곡을 수록하고 있는 꽤 훌륭한 작품이다.

또한 1982년도에 가졌던 10주년 기념 투어의 마스터 테이프를 CD화하였던 [Camel On The Road 1982] (94)가 Official Bootleg 시리즈의 3탄으로 발매되었던 바 있는데, 그다지 국내 팬들이 좋아할 만한 레퍼토리를 담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 Polygram 레이블 산하의 편집 음반 전문 레이블인 Chronicles에서는 CAMEL의 역사를 2장의 CD에 집대성한 [Echoes] (93)라는 앨범을 공개하였다. Susan Hoover가 작성을 담당한 그룹에 대한 연혁과 그들의 대표곡 26곡이 연대 별로 앨범에서 두어 곡씩 선곡되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비교적 가치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Stationary Traveller>나 <Rainbow's End>를 비롯한 몇몇의 국내 히트곡들이 없기 때문이기에 왠지 허전한 듯 싶으나, 이러한 옥의 티를 제외한다면 적절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 만한 관촬은 아이템이니 CAMEL과 친해지려고 하시는 초심자들은 가히 노려 볼 만하다.

◆ 화제의 새 앨범 [Harbour Of Tears]

수록곡: ①Irish Air ②Irish Air(instrumental reprise) ③Harbour Of Tears ④Cobh ⑤Send Home The Slates ⑥Under The Moon ⑦Watching The Bobbins ⑧Generations ⑨Eyes Of Ireland ⑩Running From Paradise ⑪End Of The Day ⑫Coming Of Age ⑬The Hour Candle(A song for my father)

94년, 자신의 아버지의 부음을 받았던 Andrew는 가족의 뿌리에 관련된 앨범을 만들기로 생각하고서, 선친들의 고향들을 찾아다니며 앨범의 제

작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을 시작하였다. 많은 어려움 끝에 그의 할머니가 살았었던 동네였던 Ireland 지방의 한 항구인 Cobh에서 그는 사고로 숨져 갔던 1200여명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내용을 소재로 한 컨셉트 앨범 [Harbour Of Tears]의 제작에 돌입하였다.

참여한 멤버로는 Andrew Latimer를 주축으로 지난 20주년 기념 투어 때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던 공신인 Mickey Simmons가 역시 참여했고 80년대 이후 같이 활동을 해주고 있는 Collin Bass가 베이스를, 그리고 전 멤버 Paul Burgess 대신에 Mae McKenna가 드럼을 연주하였다. 이전에 참여했던 바 있는 David Paton이 베이스 세션으로 참여해 주기도 했다.

1월 15일을 기해 미국의 CAMEL Production을 통해 발매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라이선스로 공개될 예정으로 있는 이 앨범은 갈수록 농익어 가는 Andrew Latimer의 창조적인 영감이 번뜩이는 수작으로 지금까지 그들의 앨범을 기다려 왔던 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 줄 듯 하다.

영국 민요 <Danny Boy>의 선율을 생각나게 하는 ①의 자연스러운 팬플롯으로 시작하여 기타 사운드와 오버 랩되는 ①의 Instrumental Reprise인 ②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앨범 전체의 분위기가 전통에 기초한 것임을 느끼게 한다. 7분 여에 걸친 대곡인 ⑦로 넘어서면서 비로소 곡다운 곡을 만났다는 느낌이 드는데, <Another Brick In The Wall>스러운 도입부에서의 베이스나, Gilmoresque한 기타의 톤을 떠올리자면 이들이 최근 PINK FLOYD에 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CAMEL다운 서정성을 품고 있는 트랙인 ⑩은 전작과 비슷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키보드 중심의 트랙이고, 역시 키보드가 강조된 7분 여의 대곡 ⑫에선 이들의 심포닉한 면과 Andrew의 기타가 두드러진 감동적인 트랙이다. ⑬은 Andrew가 이 앨범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노래로 바친 곡인데 어찌 감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하니 반드시 들어보시길.)

앨범의 전반적인 느낌은 지난 앨범 [Dust And Dreams]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 하다. 컨셉트적인 시도나, 키보드가 강조된 사운드, 연주 중심의 곡 배치 등등..

특히 눈에 띄는 싱글로 승부를 걸기보다는, 앨범의 전체적인 감상을 통해 작곡자의 의도를 나타내려 하였던 이들의 시도는 아마도 자신의 레이블을 가지게 되면서 음악을 창조하는데 있어 어떤 상업적인 걸림돌들을 제거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만일 80년대의 CAMEL은 팝적인 사운드라 싫어하시는 매니아들이 있다면 90년대의 CAMEL은 오히려 70년대 만큼이나 복고적이다. 비록 그 방법론에서 재즈적인 어프로치가 아닌 클래식적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을 뿐.

20여년 간 투철한 실험 정신으로 프로그레시브 신을 곳곳이 지켜 왔고, 매 앨범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작품을 들려주어 왔던 CAMEL의 행보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 음악을 만들어 주길 소망할 따름이다.

Mr. CAMEL, Andrew Latimer. 건강하기를.....!!

[최정준, SEC...@hitel.net, 93.8]

CAMEL Mirage(1974)

캐멀의 여러 음반중에서 그들에게 사운드적인 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2번째 앨범인 『MIRAGE(1974년)』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 앨범은 데카 레이블로 이전하여 제니시스와 캐러반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데이비드 히치콕을 맞아 제작한 것으로 플롯의 사용과 스토리 전개를 가진 장편의 구성을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앨범은 대중의 크나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방송을 타지 않았다는 흠(?)을 가지고 있다.

Doug Ferguson, Andy Ward, Peter Bardens, 그리고 Andy Latimer가 참여했다. 게다가 Backing track을 Island Studios에서 했더니...키득키득..

이 앨범이 그들의 첫번째 앨범이라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실 그들의 어느정도의 경험도 없이 만든 첫앨범은 실패작이었고 그리 잘알려지지도 않았다. 이 앨범의 겉표지를 보면 양담배 캐멀이 생각난다. 사실 대화방에서 캐멀을 얘기하면 담배이름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몰라서 묻는 사람도 많지만 알면서도 우스개로 말하는 사람도 많다. 수록곡중에서 Supertwister란 곡은 싱글로 커팅되어 유럽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기까지 했고 뒤면의 곡인 Lady Fantasy 또한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다. 수록곡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Side One

1. Freefall (5:55)
2. Supertwister (3:20)
3. Nimrodel
The Procession
The White Rider (9:18)

Side Two

1. Earthrise (6:50)
2. Lady Fantasy (12:59)
Encounter
Smiles For You
Lady Fantasy

첫곡 Freefall(자유낙하)는 그제목 그대로 자유낙하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펼쳐진다. 앨범 전체가 모두 자유분방한 듯한 느낌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주제로부터 나온 조그만 소재때문에 모든 곡들이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꾸 귀기울이게 만든다. 처음 들었을 때와 그 다음에 들었을 때의 느낌이 다르듯이 매번 그 느낌이 새로운 앨범이다. 그러나 주제의 흐름이 일관되기 때문에 금방 실증날 수도 있다. 빠르고 느리게 적절히 섞여 있으며 플롯의 적절한 사용이 매우 아름답다.(?) 플롯은 두번째 곡에서 등장하는데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곡이다. 본인의 느낌으로는 첫번째 곡이 훨씬 좋다고 느껴지지만 시대적 상황과 지리적 상황때문인지 그들에겐 그 다음의 곡이 훨씬 인기가 있었다한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곡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지 메일이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뒤면의 레이디 환타지는 세파트로 나뉘어 있다. 그중 마지막 파트가 백미라고 일컬을 수 있으니 레이티머의 그 기막힌 기타 연주를 들어보자..사실 그의 연주는 다른 기타리스트에 비해 뛰어나지는 않지만 캐멀의 실황 비디오를 본 사람은 알 수 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레이디 환타지를 연주할 때 레이티머의 눈에 비친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설마 조명에 눈이 아파서 흘린 건 아니겠지..) 캐멀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다른 아티스트에 비해 음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음악성은 실재론 무척 뛰어나다. 캐멀을 별루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듣는 음악의 음악성 내지 그 사람의 귀가 의심스럽다. 캐멀정도의 사운드와 음악성을 지닌 그룹이 어디 흔하겠는가? 혹시 이 앨범의 가사 아시는 분은 좀 적어줘요~~

[정철, zep...@popsmail.com, 95.12]

CAMEL Mirage(1974)

연말이라서 그런지 쓸데없이 마음이 뒤숭숭하다. 그냥 안정이 안되고 뭔가해야할 것만 같은데 막상 할 것은 없다. 어찌면 꾸리스마스를 솔로로 보낼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때문인지도 모른다. 요새 뭐 그럴다. 그래도...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찾아보면 카멜만큼 상반된 평가가 엇갈리는 밴드도 드물다. 상당수의 매니아들은 이들의 또다른 명작 Stationary Traveller를 듣고 입문했으며 이들의 다른 음반도 나름의 수작이라고 여기는 반면 아일랜드의 몇몇 이들을 비롯한 또다른 매니아들은 카멜이라면 욕을 퍼붓는다. 아마도 이 이유는 내가예스에 욕을 퍼붓는 이유와 같을것이다. 왠지 싫다는....

이들의 메이저 데뷔작이며 이집인 본작은 이들의 특징인 서정적인 연주가 주된 축을 이루면서도 몰아치는 연주가 간간히 끼어있는 색다른 음반이다. 주로 앞면이 서정적이고 뒷면이 격정적인데 Earthrise에서 나오는 Doug Ferguson의 Bass소리는 정말 놀랍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운드의 핵은 Peter Bardens가 쥐고있는듯하다. 일단 키보드군이 주된 선율을 이루고 음악의 흐름을 그의 키보드가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후에 탈퇴하여 솔로활동에 전념한다. 그런데 드러머 Andy Ward가 다루는 악기군에 cans와 bottles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강통과 술병을 악기로 썼단 말인가...?

재킷은 양담배 카멜의 껍질과 유사하다. 아마 애들이 패로디한것같다. 거기에 앨범타이틀과 같이 낙타가 신기루에 가려 흐느적거리게 보이는 모습.그저 그런(사실 이들의 커버는 태반이 썰렁하다) 재킷이다.

뭐니뭐니해도 앨범의 백미는 마지막 조곡 Lady Fantasy이다. 약간 긴장감이 걸려된 면도있지만 본작의 성격을 모두 담고있고 비장미마저 서려있는 구성력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특히 세번째 파트인 Lady Fantasy는 Earthrise와 유사하게 격정적인 연주로 앨범의 대미를 장식한다.

[김근표, 9141007, 92.12]

CAMEL Rain Dances(1977)

최근작 "dust and dreams"으로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한 camel의 중반기 작품에 속하는데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평론가는 이전의 camel의 음악에 비하여 "질서가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필자가 보기에도 camel의 이전 앨범들과는 다른 점을 많이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전앨범들에 비하여 떨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앨범에는 많은 게스트들이 참여하여 앨범을 빛내주고 있다. 이전에 bass를 맡던 Doug Ferguson이 탈퇴하여 그 유명한 Richard Sinclair이 대신 bass fm를 담당하였고 몇 곡의 vocal도 담당하였다. 그리고 Mel Collins, Brian Eno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을 비롯해 Malcolm Griffith, Martin Grover 등이 참가하였다. 특히 Mel의 색소폰은 이 앨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side one의 첫 곡 "first light"는 제목답게 밝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감흥이 와 닿는 곡이다. Bardens의 키보드와 Latimer의 기타가 어울려 곡을 진행해 나간다. 그러다가 중간부분에서는 Space Rock풍의 연주가 이어진다. 곧이어 Mel Collins의 색소폰.... 사실 처음에는 듣기가 약간 어색했다. 키보드와 기타를 연상케하던 camel에 웬 색소폰.. 물론 색소폰을 사용한 camel의 다른 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웬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들어서야 곡에 친근감이 들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고개를 가우뚱 할 때가 있다.

두번째곡 "Metrognome"은 Sinclair의 보컬로 시작된다. 역시 중간부분은 Mel의 색소폰이 기타와 함께 어우러진다. 첫 곡보다는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키보드의 반복되는 음이 환상적인 효과를 나타내며(첫번째곡에서도 유사한 연주가 있었다.)기타의 애드립과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세번째곡 "Tell Me"는 조용한 발라드 풍의 연가로 Richard의 보컬은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준다. side one에서 가장 인상적인 곡으로 기억되는데, 또 mel collins는 클라리넷과 베이스 클라리넷(사실 구분하기 힘든 음이다. 자켓 속지에 써있어서...참고하세요)을 담당하고 있다. Bardens의 mini moog도 곡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는 중요수단이다.

이 면의 마지막곡 "highways of the sun"은 약간 팝적인 분위기의 곡으로 Latimer가 보컬을 담당하였다. Bardens의 오르간과 신디사이저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다.

side one의 곡들의 mel의 색소폰을 제외하고는 camel 특유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었다. 이전보다 사운드가 가볍다고 느껴지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side two로 가서의 첫 곡은 "Unevensong"으로 시작된다. Richard의 보컬, Latimer의 기타, Andy Ward의 드럼이 조화를 잘 이룬 곡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부분의 악기파트가 전면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camel의 곡임을 느끼게 해주는, 들으면 들을 수록 끌리는 곡이다.

두번째곡 "One of these days I'll get an early night"라는 긴 제목의 곡은 이곡이 camel의 곡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느 재즈 뮤지션의 곡이라고 말해도 곧이 믿을 만한, 재즈적 성향의 곡이다.(단순히 색소폰, 트럼펫, 트럼본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리듬이 camel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Martin Drover의 트럼펫, Malcolm Griffith 의 트럼본을 연주했다.

세번째곡 "Elke"는 Brian Eno가 협연한 곡으로, Latimer의 Flute, Fionna Hi bert의 Harp가 Eno의 환상적인 연주와 함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서정적인 연주곡이다. 전체앨범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곡이다.

네번째 곡은 "Skylines"로 Sinclair의 베이스가 복잡하게 들리며, Latimer의 기타가 그위로 연주되며 시작된다. 이곡은 앞의 두번째곡(제목은 길어서 생략)과 연주한 Line-up은 동일하나, Brass Part가 아까와는 달리 그다지 강하게 어필되지 못하고 키보드가 현란하게 수놓아지고 기타가 거기에 일조를 한다.

마지막곡이자 타이틀곡 "rain dances"는 약간은 무겁고 장중하게 시작된다. Bardens의 키보드와 Mel의 소프라노 색소폰(처음에는 전자 피아노처럼 들린다.)이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며 연주되다가 side one의 첫 곡, 두번째곡에서 나타난 비슷한 키보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또 신디사이저와 기타가 거기에 어울려 연주되면서, 약간은 허무하게 곡이 끝난다. 참고로 이곡에서 연주를 하지 않는 Andy wards, Richard Sinclair, Mel collins를 앨범 해설지에서는 "um brlla"라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사실 이 앨범을 구할 당시에는 camel의 다른 앨범을 구하려고 했으나, 레코드 가게 아저씨의 권유로 이 것을 샀다. 처음에는 자켓이 약간 무섭고(?), 음악도 잘 모르는 상태여서 후회도 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다는 생각에 그 아저씨께 고마운 생각이 든다.

[강정훈, BU...@hitel.net, 96.8]

CAMEL Breathless(1978)

CAMEL은 한국에서 어느정도의 지명도를 갖고 있는 밴드라고 생각된다. 몇몇 그들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소개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나온 신보도 무척 좋지만, 내겐 70년대의 앨범들이 너무나 좋게 느껴 진다. 이들의 사운드는 매우 안정적이고, 지적이다. 아는체하는게 아니라 자제하고 있는듯한 분위기가 상당히 멋지다는 얘기가. 90년대에 들어서는 상당히 CONCEPT에 신경을 쓰는데, 난 70년대의 개념(?)없는 듯한 사운드가 더 좋다. 얼마전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를 주머니 사정에 의해 놓쳐버린 실의에 빠져 BREATHLESS로 실의를 감동으로 바꾸기 위해 듣고 또 듣는다. 먼저 ECHOES나 RAINBOW'S END는 모두 잘 아시는 이들의 대표적 명곡이고, 그외에 THE SLEEPER, SUMMER LIGHTNING 들이 있다. 깔끔한 연주위에 펼쳐지는 그들의 지성은 80년대 보다 70년대의 앨범들에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벼운 느낌이라고 싫어 할지도.. 그러나 그들의 지성적 사운드는 그렇게 쉽게 평가되어져야 할 것은 아니다. 뭐 희귀음반이라고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한 음반을 별 정보도 없으면서 사느니 보다 이런 알찬 앨범을 사는게 더 현명할 것 같다.

[윤석화, 577102, 92.8]

CAMEL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1979)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
(여기서 그대의 집이 보이네)

Side 1 (1979)

1. Wait
2. Your love is stranger than mine
3. Eye of the storm

4. Who we are

Side 2

1. Survival
2. Hymn to her
3. Neon Magic
4. Remote Romance
5. Ice

Camel의 음악은 어떻게 들으면 단순하지만 사실은 그 단순함이 오히려 듣는이로 하여금 더욱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타그룹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를받아 아쉽기도 합니다 이 음반은 Camel의 전 음반 가운데서 가장 구하기 힘든 앨범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음반가운데서도 Pallas [The sentinel], Edgar Froese [Aqua], Steve Howe[Beginings]와 더불어 힘들게 구한음반가운데 하나인데 힘들게 구한만큼 값어치를 한다고나 할까요? Camel의 음반가운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맘에드는 음반입니다. 사실 이음반은 Ice란 이 한국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음반이라고 할수있는데 마치 듣는 이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다고나 할까요. 정말 명곡입니다. 전곡이 다 들을만 저는 개인적으로 Who we are란 곡을 Ice와 더불어 가장 즐겨 들습니다. 이 곡은 전반부에서는 깔끔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정말이지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물흐르는 듯한 보컬이 일품입니다.이 음반에는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 멜 콜린스가 참여해주고 있고 필콜린스가 드럼 연주등을 지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음알게 된것은 지금은 폐간된 음악세계에서 '이진규'씨가 뽑은 명반10에서 었습니다. 보는순간 반드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십자가를 등에진 우주인의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인상적인 자켓이 정말이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말처럼 성경에 나와있는 '신은 당신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있다'라는 귀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진규씨의 지적처럼 앨범 전체의 사운드가 깨끗한 인상과 함께 가슴에 톡톡와 닿는 느낌을 주고있고 이런 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생 부?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만듭니다.우리에게는 방송을 통해 Hymn to her와 Ice가 가끔 소개가 되었는데이 이 음반은 한마디로 대중적이면서도 깊은 감동을 주는 명앨범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최정준, SEC...@hitel.net, 93.8]

CAMEL Single Factor(1982)

캐멀 (CAMEL)은 영국 서정파 프로그래시브 록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그들의 음악이 일명 아트록으로 불리기도 하나 그들의 부드럽고 경쾌한 사운드와 세련된 음률과 곡의 배치,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찍으로 인상적인 밴드이다.

캐멀의 이러한 사운드는 그룹의 리더이자 끝까지 오리지날 멤버로 남아 있는 앤드류 레이티머(Andrew Latimer)와 그들의 초기 사운드 확립자로 불리워지고 있는 피터 바덴스(Peter Bardens)의 탁월한 재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앤드류의 기타는 그리 탁월하다거나 테크니컬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운드는 이상하리만큼 잘어울려진다.

지금 소개하고자하는 앨범은 초기 멤버중 단 한사람인 앤드류만이 참여하여 발표된 신생 캐멀의 첫번째 앨범이고 통산 열한번째 앨범이다. 실질적으로는 앤드류와 그의 음악적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앤드류 자신의 솔로앨범이나 마찬가지로 평가 받고 있는 앨범으로 『SINGLE FACTOR (1982년)』다.

사실 그룹 캐멀은 그들의 음악성이라든가 실력에 비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그룹이다. 당시 영국은 프로그래시브 록의

전성 시대로 이때 결성되었다는 것 자체가 불운이면서 그들에게 힘이 있을 지도 모른다. 당시의 영국 프로그래시브 록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테마를 중시한 콘셉트 앨범위주의 활동을 편 G E N E S I S 나 무디 블루스, 가사보다는 테크닉에 중점을 둔 E L & P, Y E S, 그리고 이상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활동했던 킹 크림슨 등의 3가지 종류가 존재했었다. 캐멜은 이 3가지의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활동을 펼쳤다.

앨범 『SINGLE FACTOR』와 『STATIONARY TRAVELLER (1984년)』는 앤드류의 모든 음악적 재능이 응축된 앨범이다. 그들의 모든 앨범이 모두다 뛰어나고 음악적으로 훌륭하기에 어떤 앨범을 꼭 고집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본인은 그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단연 이 앨범을 택할 것이다. 만약 이 앨범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STATIONARY TRAVELLER』나 『MIRAGE』를 택했을테지만 이 앨범을 들음으로 인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 앨범에는 많은 뮤지션이 참여하고 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에서 활동했던 Chris Rainbow, 제니시스의 본래의 기타리스트였던 Anthony Phillips, 10cc의 Duncan Mackay, 드러머 Simon Phillips가 참여했다.

S I D E O N E

1. NO EASY ANSWER (2:55)
2. YOU ARE THE ONE (5:20)
3. HEROES (4:47)
4. SELVA (3:30)
5. LULLABYE (0:55)

S I D E T W O

1. SASQUATCH (4:40)
2. MANIC (4:24)
3. CAMELOGUE (3:41)
4. TODAY'S GOODBYE (4:04)
5. A HEART'S DESIRE
6. END PEACE (5번곡과 함께 4:00)

@NO EASY ANSWER

어떤 쉬운 답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해답의 불확실성을 압니다. 그것은 단지 바로 당신의 정신속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쾌하게 시작되는 첫곡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의 존재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어도 말하기 쉽지만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다는 내용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YOU ARE THE ONE

내가 내자신의 힘으로 나의 정신의 외부에 있을 때 어떻게 성장했고 과거의 길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왔는지를 깨달았다. 당신은 바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온 그 인물이요, 그것을 올바르게 만들 사람이요, 나에겐 모든 걸 준 사람이요, 문을 연 사람이요, 나의 부름에 귀기울인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의 존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한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에 대한 곡이라고 보인다. 즉, 내 안의 나를 올바르게 보자는 내용이다.

@HEROES

제목이나 가사의 내용에 비해 딱 잔잔한 곡이다. 당신을 위해 영웅들을 부른다는 내용...글쎄...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누군들 영웅이 되지 못할까?

@SELVA

첫번째 면에 실린 단 한곡의 연주곡으로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 곡명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아시는 분은 좀 알려줘요~

클래식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잔잔한 음률이 뒤로 흐르는 가운데 일렉 기타의 멜로디가 은은하게 흐르고...일렉이 주가 되는 듯 하면서도 신디사이저가 주가 되기도 하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곡이 끝난다.

@LULLABYE

사전에 나온 것으로 보아 끝에 E자는 생략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자장가라...후후..무척 짧은 곡이다. 이것은 단지 밤동안 너를 돕는 노래이다. 마치 자장가처럼. 그리고 네가 강하지 않거나 모든 것이 옳지 않다면 이것은 나의 자장가이다.

@SASQUATCH

앞면의 첫곡과 마찬가지로 꽤나 경쾌한 곡이다. 리켄바커 12줄 기타가 등장하고 미니 무그도 등장한다. 경쾌함 못지 않게 차가운 듯하면서도 깨끗한 사운드가 마음을 사로잡는 연주곡이다.

@MANIC

격렬하고 걱정적인 사운드가 흐른다. 마지막 부분에는 웅장하면서 장엄한 신디사이저음색(오르간)이 넘치고....편집중에 시달리고 나이트 메어에 휘말리고...내용적으로 대유법이 쓰였다. 밝은 면에서 볼 때 틀린 면에서 보고 어두운 면에서 볼 때 밖에서 보고 그리고 지금은 올바른 상태로 돌아와 미안해하고...

@CAMELOGUE

어디선가 많이 귀에 익은 곡이다. 잘생각해보니 도입부분이 캐멀의 다음 앨범인 『정지된 여행자』의 VOPOS란 곡과 흡사하다. 수필의 프롤로그와도 같은 내용과 분위기의 곡이다. 홀로의 솟아남이라... 그리고 마지막 물음..What can I do?

@TODAY'S GOODBYE

백보컬이 감미롭다...(음..다른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게는 남성의 이러한 목소리가 여성의 것보다 훨씬 좋다) 당신이 흘리고 간 조각들을 주워 안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그걸 잊으려하겠지요 당신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별을 묻지 안겠습니다. 음....

@A HEART'S DESIRE

떠나고자 하는 당신의 욕망에 대해 아무런 미련없이 보내는 나.. 그것에 대해서 잔잔한 흐름으로 설명하고 백보컬 또한 아련한 감을 주면서 다음 곡인 END PEACE로 연결된다.

그리 잘한 해석이나 감상평은 아닙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테고, 하지만 이걸 제가 느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니까요~ 계속 해서 제 글을 사랑해주세요~

[김병규, gama...@dragonar.nm.cau.ac.kr,96.5]

제 목:[까막새] Camel : On the road 1982 관련자료:없음 [2152]

보낸이:김병규 (gamaksae) 1996-05-04 01:53 조회:184

안녕하세요?

어릴적 꿈꾸던 작은 세상을 믿으며 살고 있는 까막새 김병규입니다.

< CAMEL : On the road 1982 >

세일음향에 갔더니 재미난 음반이 하나 나와있길래 알려드립니다.

요즘 신작을 발표하면서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캐멀의 비공식 라이브 부트랙이 삼포니-Canyon레이블로 새로 리마스터링 되어 발매되었습니다. 리마스터링이 잘 덕에 너바나의 값비싼 부트랙같이 조잡한 음질이 아닌 그들의 썩 잘된 라이브 앨범 "Pressure Point"에 필적할 만한 음반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 앨범은 1982년도에 그들의 결성 10주년 기념 투어를 녹음한 것이란데, 공연테이프를 분실한 덕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녹음했던 것을 엔지니어

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복원되어 발매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케멀 프로덕션에서 정식 부트랙으로 발매된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케멀은 스튜디오 앨범보다는 라이브를 선호하는 편인데, 케멀의 팬이라면 이런 걸 떠나서 꼭 소장해야 될 음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40여분의 짧은 라이브 앨범이었던 "Pressure Point"에 비해 총 러닝 타임 68분 41초를 자랑하는 이 앨범에는 모두 14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곡은....

Sasquatch*

Highways of the sun

Hymn to her

Neon magic

You are the one

Drafted*

Lies*

Captured*

A Heart's desire/End peace

Hereoes

Who we are

Manic

Wait*

Never let go

입니다.

*표시 된 곡은 "Pressure Point"앨범과 중복곡이고요.

이너재킷의 앤디 레이티머의 멍청스런 사진이 좀 아쉽지만, 정말 잘 샀다는
느낌이 드는 앨범입니다.
늦기 전에 빨리 사두시길~~~

[하세민, 93.7]

CAMEL Dust and Dreams (1991 Winter, 15th)

글쓴이 : 1993년 7월 하세민

옮긴이 : 1995년 9월 14일 (목) 1:18am 박재완

어릴적 흑백 필름으로 보았던 기억이 가물가물 떠 오르면서 그때 당시 느꼈던 그 느낌 - 은근히 분노를 일으켰던 - 기억이 떠오릅니다. 영화를 보면서 '해도 너무하는군. 하늘도 무심하시지'란 느낌이 바로 와 닿을 정도로 기억이었습니다. 그 '분노의 포도'를 다시 떠오르게 한 작품이

CAMEL의 'Dust and Dreams'입니다. CAMEL에 대해 잘 아는 편도, 작품에 대해 잘 이해도 안된 상태지만 CAMEL을 처음 접하게된 'Stationary Traveller'를 듣고는 누구나 감명 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느꼈고, 그 이후 몇편을 접했지만, 이 앨범만큼의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진 가운데 펼쳐진 서사적 작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의 삶과 고뇌란 거창한 말들을 꺼내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글은 CAMEL 15집 CD의 해설을 옮겨 실습니다.
글쓴이 동의 없이 옮겨 싶게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국 Rock 20년의 Art rock 기둥

John Ernst Steinbeck의 미국문화 'The Grapes of Wrath (1939)'를 음악화한 Dust And Dreams

* Album Review -----

1. Dust Bowl

1930년대 전반 건조한 평온 지대(미국 중남부)의 사막에 부는 바람으로 불모가 되어 버린 존드가의 차남 톰이 가석방 4년만에 고향에 돌아와 본 것은 황량함 그 자체였음을 연주한 곡.

2. Go West

흥작으로 돈을 벌었던 존드일가가 트랙터의 출현으로 조부 때부터 고생하여 개간했던 토지를 떠난 꿈의 낙원 캘리포니아 이야기를 들려준다. 앤드류 레이티머의 은은한 목소리로 이 곡을 노래한다.

3. Dusted Out

신디연주가 긴장을 주는 이 곡은 농민들이 농기구랑 가제를 사들였고 짐을 정리하는 존드 일가 12사람과 설교사 케이시의 모습을 연주로 들려준다.

4. Mother Road

국도 66호선의 별명으로 시카고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대륙 횡단하는 도로에서 고행을 떠난 수십만의 농민들이 서쪽을 향해 대이동을 시작한 모습을 담고 있다.

5. Needles

아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주 경계의 거리인 Needles에 당도한 존드일가가 전력을 다하여 오는 동안 지친 장남 노아를 남겨 두고 밤의 사막 행을 결정하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6. Rose of Sharon

장녀 로자 샤론이 새로운 생활을 꿈꾸는 것을 노래했다. 아버지 코니가 좋은 일이 생기면 시골에 살고, 영화를 보고, 다리미를 사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희망에 찬 벅찬 감동을 기타 연주로 고조시킨다.

7. Milk n' Honey

적막한 사막을 그린 이 곡은 야간에 사막을 통과하는 존드일가는 아침 햇살 속에서 눈 아래 계곡으로 펼쳐져 있는 일대의 과수원을 본다. 처음 보는 풍요로운 토지에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장면을 연주한다.

8. End of Line

피아노 연주가 영롱하게 시작하는 이 곡은 조부모의 잇달은 죽음을 뛰어넘어 가까스로 당도한 캘리포니아. 그러나 밝은 태양에 빛나는 신록의 대지는 그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지주인과 은행만이 살아남은 가혹한 현실에 부딪친 것이다. 홍수에 의해 흘러 들어온 농민과 부당하게 내려 짊여진 임금. 그리고 박해, 태운 집... 가혹한 현실에서 틈을 놓아주기 위해 스스로 연행하는 케이시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9. Storm Clouds

10. Cotton Camp

긴장감이 넘치는 사운드로 시작하는 이 곡은 넘치는 하천에 이주민들이 야영하는 면화 농장에 홍수 위험이 닥쳐오고, 그때 상태가 나쁜 로자 샤론은 산기가 있었고, 필사적으로 흠을 쌓는 사람들의 긴장감을 연주한다.

11. Broken Banks

큰 나무가 하천을 삼켜 버리고 지쳐 버린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지켜보는 사이에 쌓아올린 흠이 돌연 붕괴되어 버린 모습을 모습을 현란하게 연주한다.

12. Sheet Rain

계속해서 과감하게 흘러 들어오는 흠탕물과 단념한 얼굴의 남자들 모습. 캘리포니아의 비는 물의 장벽같이 밀도가 농후라고 시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Sheet Rain이라 붙여 연주하여 준다.

13. Whispers

갓난아기는 샤론옆에서 지쳐 있고, 꿈을 전부 잃어버린 그녀를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모친과 이웃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곡이다.

14. Little Rivers and Little Rose

결국 사망한 갓난아기를 사과 상자에 넣어 홍수로 넘친 하천으로 흘러 보내는 존 백부의 침통함을 이 곡에서 연주하고 있다.

15. Hopeless Anger

다시 복잡하고 강한 비트가 넘치는 이 곡에서 사람들이 모일수록 임금이 떨어지고 더욱이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지방에 드문드문 뿌려진 구인 전단지과 큰 자본으로 흡수되는 소규모 농장. 거기에 운집하는 이주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교차된 상황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연주하여 준다.

16. Whispers in the Rain

작품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 곡에서 홍수로 물에 잠긴 화차로부터 크고 작은 언덕 위의 헛간으로 도피하는 존드일가가 죽음 직전의 남자를 발견한다. 자식에게 먹을 것을 전부 주고 자신은 먹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에게 샤론은 살짝 자기의 젖을 물렸다. 신비적인 미소를 띄면서...사운드는 환희와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Sound가 흐르고 존드일가의 고행 이야기는 모두 끝맺는다.

* Dust and Dreams -----

본 작은 1985년 영국에 살고 있던 앤드류 레이티어가 미국 문학의 대표작 명작 "The Grapes of Wrath : 분노의 포도 (1939) - John Ernst Steinbeck작"에서 감동을 받아 86년부터 레코딩을 시작하여 첫 번째 곡부터 일곱 번째 곡까지 88년 캘리포니아에서 녹음하고 90년에 파트별로 녹음을 거쳐 영국의 킨크에서 후반 곡들을 완성하여 91년 겨울에 발매하였다. 앤드류는 직접 미국의 캘리포니아로 날아가서 소설의 실제 장소를 보고 그곳에서 주인공 톰 존드(Tom Joad)일가를 알게 되어 본 작품의 세밀성을 더해 주었다. 모든 작곡은 앤드류가 맡았으며 6과 8번 곡의 가사는 수잔 후머(Susan Hoover)가 해주었다.

* Prologue -----

국내 팬들에게 서정적인 연주 그룹으로 사랑 받은 CAMEL은 영국의 Art Rock/Progressive 그룹이다. 지난 73년 "Camel"을 공개한 이후 86년 Best album에 이르기까지 모두 14장의 작품을 발매했으며, 그중 "Mirage(2집)", "Moonmadness(4집)", "Nude(9집)", "Chameleon(10집 - Best Album)", "Stationary Traveller (12집)"등이 국내에 소개되어 호평을 받았다. 그후 침묵을 지키다가 그들의 세 번째 컨셉트 앨범이자 통산 15집인 "Dust and Dreams"를 발표하면서 다시 음악계에 모습을 드러냈다.

* Lineup -----

Andrew Latimer Leader/ Guitar/ Flute/ Keyboard

1949년 영국태생.

65년 'Phantom Four' 그룹으로 시작.

67-69년 'Strange Brew'

70-71년 'Brew'

71년 'Phillip Goodhand-Tail'

72년 'CAMEL'

Colin Bass Bass

69-70년 'Daisy Show Band'

72-76년 'The Velvet Opera', 'Foundation Clancy'

76-77년 'Steve Hillage Band'

77-78년 'The Casual Band'

78년 'Carol Grims Band'

79년 'CAMEL' 가입

85년 '3Mustaphas' 결성, 활동

Ton Scherpenzeel Keyboard (1-8번곡)

71-81년 'Kayak'

-84년 Solo활동

84년 'CAMEL' 가입

Paul Burgess Drum/Percussion (1-8번곡)

73-83년 'Gentlemen IOCC'

-84년 Session man
84년 'CAMEL' 가입

David Paton Vocal (6번째곡)
74년 'Pilot' 창단멤버 (4장 발표)
84년 'CAMEL' 가입

Mae McKenna Vocal (6번째곡)
'Genesis'에서 활동

Don Harriss Keyboard (15번째곡)
미국인/NewageMusician(2장의 SoloAlbum발표)

Christoper Bock Drum Programming
미국인/ Software 회사 기술자

Neil Panton Oboe

Kim Venaas Timps/ Harmonica

John Burton French Horn

Susan Hoover 가사/ Management
미국인
75년 첫 미국공연 1981년 캘리포니아 San Jose지
역 라디어 방송 DJ로 활동하다가 인터
뷰를 통해 CAMEL을 만나게 된다. 그
후 management를 맡게 되었고, 앤드류
레이티머는 인터뷰에서 '본 작품을 완
성하기까지 여러가지 노력과 에너지를
지원해준 수잔 후버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병규, gama...@dragonar.nm.cau.ac.kr, 98.5]

CAMEL Coming of Age

<CAMEL 새 앨범과 근황 >

캐멀의 새 앨범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튜디오 앨범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내놓았던 역작 "Harbour of tears" 앨범 이후
가졌던 97년도 투어를 담은 더블 라이브 앨범입니다. 아울러 비디오도 같이 선보인
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군요.

(물론 국내에서 비디오까지 보길 바라진 않습니다...그건 과욕이겠쥬..^^)

4월초로 발매시기를 잡았다고 하니 이미 외국에서는 선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매예정이라는 소식이후,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더군요...공식 홈 페이지는
아닙니다.)

앨범 타이틀은 "Coming of age".

"Harbour of tears" 앨범 수록곡과 동명 타이틀입니다.

국내 배급권을 가진 포니 캐년 코리아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지 아무런 언급도
없는걸 보니, IMF 시대라는 상황에서 그동안 캐멀의 라이브는 나을만큼 나왔으니
만큼 그냥 넘어갈 지도 모르겠네요.

곡 리스트를 대충 훑어보니 기존의 "Never let go" 라이브 앨범과 비슷한
포맷입니다.

라이브때마다 자주 나오는 노래들이 첫번째 디스크에 수록되어 있고 두번째 디스크
에는 몇곡과 더불어 "Harbour of tears" 전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리쉬 풍의 여성보컬이 매력적이던 Irish air와 마지막 대곡 The
Hour candle을 어떻게 연주하였을지 매우 궁금하네요.

1997년 3월 13일 할리우드의 The Billboard Live club에서 가졌던 실황을 통째로 녹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클릿에는 3월 9일 샌프란시스코 The great American Music Hall 공연실황 때의 사진도 아울러 실려있으며 캐멀의 작사가로도 유명한 Susan Hoover가 찍은 공연 사진도 들어있다는군요.

비디오는 PAL과 NTSC방식 두가지 모두 발매되며 돌비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뉴스레터에서는 98년에는 캐멀은 공연을 할 계획이 없으며 앤디 레이티머는 내년쯤으로 발매계획이 잡힌 새 앨범 작곡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Susan Hoover에 의하면 Foss는 BBC와 계약을 맺었고 (원 계약인지는 언급이 없음), Dave는 마릴리언의 리더였던 Fish와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점점 캐멀도 프로젝트 성향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씨디 수록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CD 1

Lunar Sea
Hymn to Her
Rhayader
Rhayader Goes to Town
Preparation
Dunkirk
Drafted
Docks
Beached
Spirit of the Water
Ice
Sasquatch

CD 2

Milk 'n Honey
Mother Road
Needles
Rose of Sharon
Harbour of Tears
Irish Air
Irish Air (reprise)
Harbour of Tears
Cobh
Send Home the Slates
Under the Moon
Watching the Bobbins
Eyes of Ireland
Running From Paradise
End of the Day
Coming Of Age
The Hour Candle

다음은 비디오 수록곡.....

VIDEO

Lunar Sea
Hymn to Her
Rhayader
Rhayader goes to Town
Drafted
Docks
Beached
Spirit of the Water

Ice
 Sasquatch
 Mother Road
 Needles
 Rose of Sharon
 Irish Air
 Harbour of Tears
 Cobh
 Send Home the Slates
 Under the Moon
 Watching the Bobbins
 Eyes of Ireland
 Running from Paradise
 End of the Day
 Coming of Age
 The Hour Candle

마지막으로 라인업을 소개해드립니다.

Andrew Latimer: Guitars, Keyboards, Flute, Recorder, Vocals
 Colin Bass: Bass, Keyboards, Acoustic Guitar, Vocals
 Dave Stewart: Drums, Percussions, Samples
 Foss Patterson: Keyboards

지금껏 캐멀의 소프트들은 타 밴드들에 비해서 매우 다양한 아이템이 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니 캐년 코리아의 덕이었겠지요.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새 앨범도 라이선스던지 수입이던지 국내에서 만지작거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ever let go처럼 더블 씨디가 한장가격이면 더욱 좋겠지요?

[김병규, gama...@dragonar.nm.cau.ac.kr, 97.6]

Camel 완벽! Discography

1973 - Greasy Truckers: Live At Dingwall's Dance Hall

2장의 편집음반으로, SIDE 2에 캐멀의 노래가 실려있다. '켄터베리 Scene'의 4 밴드 Gong, Camel, Henry Cow, The Global Village Trucking Co.의 라이브를 녹음한 앨범이다.
 캐멀은 Lord of Light Revisited의 parts 1,2 & 3를 연주한다.
 이 곡은 그들의 God of light라는 On the road 씨리즈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 이 앨범은 콜렉터들 사이에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리는 아이템이다.

 1973 - Camel

Slow yourself down
 Mystic queen
 Six ate
 Separation
 Never let go
 Curiosity
 Arubaluba

Andy Ward: Drums and Percussion
 Doug Ferguson: Bass and Vocals on tracks 2,6
 Peter Bardens: Organ, Mellotron, Piano, VCS3 Synthesizer and Vocals on track 5
 Andy Latimer: Guitar and Vocals on track 1,4

캐멀의 데뷔 앨범인 본작은 그들의 베스트 앨범 중 하나이다.
 두번째 앨범인 "Mirage"와 매우 유사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앨범에서는

단순한 록 넘버와 함께 어느 정도 재즈 락의 즉흥연주가 가미된 트랙도 눈에 뜨인다.

자켓에는 기차와 혼합된 낙타의 그림이 있는데, 낙타가 흘리는 눈물이 별로 변하는 모습이 흥미롭다. 물론 초창기 앨범인 만큼 자켓의 디자인은 상당히 촌스럽다. 뒷 커버에는 밴드의 흑백 사진이 있다.

이 앨범은 MCA레코드사에서 LP로 발매되었으며, 지금은 캐멀 프로덕션에서 발매된 씨디로 구할 수 있다.

CD에는 가사집과 그룹의 사진들이 실려있다.

앤디 레이티머는 이 앨범의 제작과정을 한마디로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전한다.

이 앨범은 발매 첫해에 5000카피가 팔려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몇년이 지나서 컬렉터들의 표적이 되었었다.

캐멀을 이 앨범의 곡들을 가지고 바클리 제임스 하비스트의 서포팅 공연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 앨범의 씨디에는 Song Credits가 생략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4,5 by Latimer, 2,6,7 by Bardens, 1 by Ward/Latimer.

Tech: LP: MCA 250 634-1, MCA MUPS 473, MCA 2665. Released in February 1973

CD: CP-002CD

1974 - Mirage

Freefall

Supertwister

Nimrodel / The Procession / The white rider

Earthrise

Lady Fantasy:

Encounter

Smiles for you

Lady Fantasy

Doug Ferguson: Bass

Andy Ward: Drums, Cans, Bottles & Body mist

Peter Bardens: Organ, Piano, Celeste, Mini Moog, Mellotron & Vocals

Andy Latimer: Guitar, Flute & Vocals

매우 뛰어난 걸작이다, 전작에 비해 리듬이 많이 바뀌었고, 오르간과 기타의 주고 받는 연주가 뛰어나다. 그리고, "Supertwister"와 같은 노래에서의 플롯 솔로는 가히 압권이다. "Lady Fantasy"에서는 앞으로 그들이 선보이는 매우 복잡한 구성의 곡들을 엿볼 수 있는 트랙이다.

커버에서는 캐멀 담배갑이 캐멀의 로고와 함께 그려져있다.

미국 버전의 커버는 1집에 있던 낙타가 등장하는데, 용가리의 몸을 하고서는 어느 먼 행성의 사막표면에서 입에 이상한 크리스탈 볼같은 것을 물고있는

그림이다.

LP, CD모두 발매되었다.

3번째 트랙은 메틀과 아트록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환타지 소설인 톨킨의 "반지의 지배자"에서 따온 것으로, White rider는 마법사 갠달프이고, Nimrodel 은 중간계에 위치한 호수의 이름이다.

캐멀의 매니저인 Geoff Jukes는 GAMA레코드를 설립하는데, 이 앨범부터 Stationary Traveller 앨범까지 캐멀은 이 레이블을 통해 앨범을 발표하게 된다.

캐멀은 앨범 발표후, 위시본 애시의 서포트로 미국에서 7주 동안의 공연을 갖게 되는데, 45분에 달하는 (이게 서포트 공연 맞아?) 공연을 펼치게 된다.

한가지 재미난 것은 이 앨범의 카세트 테이트 케이스가 담배갑과 매우 비슷해서 슬쩍 담배를 권하는척 하면서 다른 이에게 넘기면 속아넘어간다는 것인데, 카세트 껍데기 개판으로 만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여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캐멀과 캐멀 담배회사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가 의심하는데, 앤디 레이티머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고 한다.

하긴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그걸 대놓고 이야기 할리도 없다.

캐멀담배는 영화 "엔젤하트"에서 미키 루크가 매우 맛있게 피는 담배로 필자의 기억에 남아있다.

미라지는 빌보드 차트 149위에 까지 올라가는 성공?을 거둔다.

Tech: LP: Passport PB 9855, Janus JXS 7009, SML 1107. Released in March 1st
1974, UK
MC: Passport PBC 9855
CD: Deram 820 613-2

1975 - The Snow Goose

The great marsh
Rhayader
Rhayader goes to town
Sanctuary
Fritha
The snow goose
Friendship
Migration
Rhayader alone
Flight of the snow goose
Preparation
Dunkirk
Epitaph
Fritha alone
La princesse Perdue
The great marsh

Andy Ward: Drums, Vibes, Varispeed Percussion
Doug Ferguson: Bass and Duffle Coat
Peter Bardens: Organ, Mini Moog, Electric Piano, Pipe Organ, Acoustic Piano,
ARP Odyssey
Andy Latimer: Electric, Acoustic and Slide Guitars, Flute, Vocals

매우 구하기 쉬운 캐멀의 앨범으로 프로그레시브 매니어가 아닌 사람이라도 캐멀을 처음 듣기 시작할 때 듣기에 딱 맞는 음반이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 앨범이 "Stationary Traveller"와 함께 그들의 최고 걸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간간히 오케스트레이션이 눈에 띄고, 두개의 보컬 파트가 있긴 하지만 가사없는 인스트루멘탈 앨범이다. 원래는 나레이션을 깔려고 했지만 도중에 그들은 이 생각을 포기했다.

처음에는 이 앨범이 발표되었을 때, 평론가들은 가사가 없는데에 대해 매우 의아해 했고, 인기마저 약간 떨어졌었다고 한다.

커버에는 예의 등장하는 캐멀 담배 로고와 함께, 흰색, 파랑색, 금색으로 치장된 스노우 구즈가 동그란 알과 같은 원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림이 있다.

더블 폴더로 제작된 한정 LP 앨범에는 뒷 커버에 짧은 스토리와 각 노래에 대한 해설이 쓰여 있다고 한다.

이 앨범은 Paul Gallico란 사람의 동명소설에 기초한다.

저작권에 걸려, 법정에 실뻐했기 때문에 앨범 커버에 "music inspired by"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원래 바덴스는 헤르만 헛세의 "Siddhartha"나 스페판 울프의 소설을 인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Ferguson이 제안한 스노우 구즈로 레이티머가 정했다고 한다.

스토리는 습지대에 살고 있는 외로운 사람 "Rhayader"에 대한 내용이다.

필자가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레이티머의 플룻 연주가 매우 인상적이고 경쾌한 주인공의 이름과 같은 제목의 노래가 2번째 트랙에 실려있다.

Rhayader는 어느날 부상당한 스노우 구즈를 발견하는데, 이 놈을 치료를 해주면서

Fritha라는 작은 소녀를 알게 된다. 주인공에게는 유일한 친구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계절이 끝날 무렵 거위는 상처가 다 아물어 날려보내주게 되는데, 더불어 Fritha는 더이상 주인공의 집에 찾아오지 않게된다.

그러던, 주인공은 Dunkirk 전투에 참여하는데, 전쟁 와중에 거위가 다시 찾아오고 Fritha와의 우정도 다시 계속되게 된다는 내용이다.

(원본이 매우 간략해서 뭘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레이티머와 바덴스는 데본에 있는 작은 시골집에서 2주동안 칩거하면서 작곡을 했다. 이 앨범은 UK차트 22위에 오른다.

Tech: LP: Passport PB 9856, Janus 7016, Decca SKL-R 5207. Released in April 1975

MC: Passport PBC 9856
CD: Deram 800 080-2

1976 - Moonmadness

Aristillus
Song within a song
Chord change
Spirit of the water
Another night
Air born
Lunar sea

Doug Ferguson: Bass, Lead Vocal on Song Within A Song
Andy Ward: Drums, Percussion, Voice on Aristillus
Peter Bardens: Keyboards, Vocal on Spirit of the Water
Andy Latimer: Guitars, Flute, Vocal on Song Within A Song, Another Night, Air Born

이 앨범에서 케멀은 매우 강한 리듬 파트를 보여주고, 우주적인 음색의 기타와 많은 신서사이저를 쓰고 있다. 전작들에 비해 매우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퓨전의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다.

커버는 앉아서 달을 바라보는 여인의 그림이다. 더이상 담배로고는 쓰지않는다.

초기 미국에서 발매된 변형자켓에는 달의 풍경 위에 서있는 우주복을 입은 울고 있는 낙타그림이다. 속 커버에는 원래 앨범 그림이 들어있다.

이 앨범은 매우 짧은 기간동안 제작되었는데, 케멀은 무언가 좀 더 상업적인 것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강박감을 느꼈다고 한다.

베이스스트인 Ferguson은 다음 앨범의 작곡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을 끝으로 밴드를 떠난다. 그러면서 그는 밴드에게 케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데, 킹 크림슨, 에릭 클랩튼, 릭 라이트, 다이어 스트레이츠와 같은 밴드들과 연주를 펼치는 이 바닥에서 가장 유명한 색소폰 주자 멜 콜린스이다.

Tech: LP: Passport PB 9857, Decca TXS-R 115, Janus JXS-3, Released in April 1976 (Concert programme claims March)

MC: Passport PB 9857, Janus JXSC-3
CD: London 810 879-2, Janus JXS-7024
Moonmadness reached 15 in the charts

1977 - Rain Dances

First Light
Metrognome
Highways of the sun
Unevensong
One these days I'll get an early nht
Elke
Skylines
Rain dances

Andrew Latimer: 6/12 String Guitars, Pan Pipes, Fretless Bass, Flute, Acoustic Guitar, Electric & Acoustic pianos, Mini Moog, "String synthesiser", Glockenspiel, Treated guitars
Peter Bardens: Mini Moog, String synth, Electric Piano, Organ, Acoustic

Piano, Car Horns

Andy Ward: Drums, Nocarina, Teeth, Cheek, Turkish Ring, Money,
Percussion, Finger Cymbals, glockenspiel, Liquid Boo Bams,
Rototoms, Talking Drum, Smurd, Swanee Whistle, Tunisian
Clay Drums

Richard Sinclair: Bass, Vocals

Mel Collins: Saxophones, Bass & Concert Flutes, Clarinet, Bass Clarinet

Eno (Brian?): Mini moog, Electric & Acoustic Pianos, Bells, Random Notes

Fiona Hibbert: Harp

Martin Drover: Flugel horn

Malcolm Griffiths: Trombone

Ferguson가 떠나고 Sinclair가 참가하는데 그는 케멀에게 좀 더 재즈적인 영향을 끼친다. Sinclair는 Ferguson이 밴드를 떠난지 몇일후, 레코딩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아주 급하게 참여하게 되는데, 그의 Fretless Bass연주는 매우 인상적이다. 그는 Caravan에 1972년까지 소속되어 있다가 그 후에 Hatfield & The North를 결성했었다.

"Tell me"와 "Skylines"의 fretless 베이스 연주는 레이티머가 맡았다.

아직까지 그들의 음악은 충분히 프로그레시브 하며, 퓨전이나 재즈 록 쪽의 음악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앨범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리 좋아하는 앨범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좀 미묘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

커버는 야한 두 명의 여인네가 서로 크로스하듯 팔짝 뛰는 모습과 소년의 얼굴이 빗방울이 맺힌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뒷 커버에는 콜린스를 제외한 멤버들의 사진이 실려있는데, 레이티머는 또다른 밴드의 사진을 손에 들고 있다.

멜 콜린스는 아직 멤버가 아닌데, 라이브 투어에서는 같이 연주를 한다.

레인 댄스 투어는 매진사례를 이루었었다. 하지만, 미국투어는 취소된다.

Tech: LP: Decca TXS-R 124. Passport PB 9858. Janus JXS-2, Janus 7035,
Released in September 1977

MC: Passport PBC 9858, Janus JXSC-2

CD: Deram 820 725-2

RD reached 20 in the charts, 136 on the Billboards charts.

1978 - A Live Record

Disc 1:

Never let go
Song within a song
Lunar sea
Skylines
Ligging at louis'
Lady fantasy

Disc 2:

The Snow Goose:
The great marsh
Rhayader
Rhayader goes to town
Sanctuary
Fritha
The snow goose
Friendship
Migration
Rhayader alone
Flight of the snow goose
Preparation
Dunkirk
Epitaph

Fritha alone
La princesse Perdue
The great marsh

Peter Bardens: Keyboards
Andrew Latimer: Guitars, Flutes, Vocal
Andy Ward: Drums and Percussion
Mel Collins: Saxophones and Flute
Richard Sinclair: Bass on first 4 track, Vocals on 2 first tracks
Doug Ferguson: Bass on the rest of the tracks

두장짜리 더블앨범으로, 매우 녹음이 잘된 훌륭한 연주를 들려준다.
두번째 디스크는 "The Snow Goose"의 트랙이 전부 라이브로 실려있는데, 혹자는 스튜디오 앨범이 더 좋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앨범에 수록된 라이브 역시 매우 좋은 라이브공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했다.) 하지만, 오리지널 스튜디오 앨범에 비해 감동이 적은 것이 사실 이긴 하다. 캐멀은 항상 멋진 라이브 공연을 해왔는데, 이 앨범은 특히 그들의 데뷔앨범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추천할만하다. 초창기 Ferguson 재적 당시의 노래들에 Richard Sinclair가 매우 재미난 베이스 터치를 해놓은 것이 특기할 만하겠다.

커버는 로봇의 검은 손가락이 공중에 떠있는 빨간 레코드에 광선을 쏘는 약간은 유치한 그림이다.

씨디도 2CDs 세트로 나왔으며, 앞의 앨범들과 같이 John Tracy가 라이너 노트를 써놓은 북클렛이 들어있다.

스노우 구즈의 오케스트라 협연은 David Bedford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가 맡았다.

Tech: LP: London 820 727-1, Decca R7/8, DBC-R 7-8, Released in April 1978.
CD: London ???, Deram 844 122-2

1978 - Breathless

Breathless
Echoes
Wing and a prayer
Down on the farm
Starlight ride
Summer Lightning
You make me smile
The sleeper
Rainbow's end

Andrew Latimer: Guitar, CS80/50, Vocals
Peter Bardens: Keyboards
Andy Ward: Drums, Percussion
Richard Sinclair: Bass, Vocals
Mel Collins: Flute, Saxes

캐멀의 음악적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파퓰러화 되어간다.

이 앨범의 커더는 산의 지평선을 배경으로하는 낙타의 그림이다.

속 자켓에는 멤버들의 사진이 있다.

LP, CD 모두 발매되었다.

단, 주의할 것은 One way 레코드사에서 발매된 것은 매우 나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속지도 없다. 물론 음질은 좋다. (One Way에서 나온 NICE의 구하기 힘든 음반을 산 적이 있는데요. 와, 이걸 거의 해적판이더군요. 속지도 없고....

처음이 이 레코드 회사를 잘 모를때라서 아마도 유럽 해적판인가보다 의심할 정도라니까요... 거의 국내 모 직배회사와 막상막하~! 이걸보면, 국내 라이선스 회사인 서울음반이나 지구레코드가 얼마나 신경을 써주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본반의 북클렛도 무척 정성스럽더군요. 책자까지 따로 번역해 실었던 킹 크림슨의 그레이트 디시버 4장짜리 박스 세트를 볼땐 감탄....잡담이 기네요.)

이스라엘에서 발매된 앨범은 표지에 곡 순서가 이상하게 나열된 헤프닝도 있었다. 레이티머와 바덴스는 영국 남서부의 주 Cornwall에서 작곡작업을 했고, Sinclair는 'Down on the farm'라는 곡을 써서 작곡에 참여한다. Cornwall에서 작곡작업을 하면서 바덴스는 밴드를 떠나기로 결정하는데, 레코딩 기간중에는 탈퇴를 보류한다. 그후 그는 캐멀과 두장의 음반작업을 같이하고, 가끔 라이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탈퇴로 캐멀은 음악적 뿌리의 반쪽을 잃게 되었고, 마침내 캐멀은 레이티머의 독재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외국의 한 평론가는 캐멀을 평할때, 바덴스의 탈퇴 이후의 캐멀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까지 비하시키는데 이는 바덴스의 역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캐멀의 팝 성향으로의 변화는 바로 이 시점부터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이 앨범에서 멜 콜린스는 정식 멤버로 참가한다.

Tech: LP: Decca TXS-R 132, Arista 4206, Arista 0798, Released in September 22nd, 1978.
 CD: One Way Records OW 29130 (Canadian)
 Reached Billboard #134

 1979 -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

Wait
 Your love is stranger than mine
 Eye of the storm
 Who we are
 Survival
 Hymn to her
 Neon magic
 Remote romance
 Ice

Andy Latimer: Guitars, Flute, Autoharp, Vocals, Backing Vocals
 Andy Ward: Drums, Massed Marching Military Snares, Drum Loop, Percussion
 Jan Schelhaas: Yamaha C.S.80, Prophet Five, Yamaha Electric Grand Piano,
 Mini Moog, Grand Piano, Solina, EMS Sequencer
 Kit Watkins: Hammond C.3, Solina, Yamaha Electric Grand Piano, Rhodes
 Piano, Mini Moog, Clavinet, Flute, Yamaha C.S.80, Grand Piano
 Colin Bass: Bass, Vocals, Wal Fretless Bass, Backing Vocals.
 guest appearances:
 Mel Collins: Alto Sax on "Your Love is Stranger than Mine"
 Phil Collins: Percussion

캐멀의 음악이 바야흐로 "80년대"에 접어든다.
 몇 몇곡은 매우 훌륭하며, Ice같은 노래는 매우 강한 프로그레시브 곡이다.
 (10분에 달하는....) "Neon Magic"의 가사는 Viv McAuliffe이 담당했고, "Wait"는 John McBurnie이 담당했다.
 커버는 십자가에 매달린채 우주유형을 하는 우주인이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 그려진 전작들에 비해 매우 독특한 커버이다. 물론 멋드러진 것은 아니다. 캐멀의 자켓중에 "Stationary Traveller" 빼고 커버가 디자인적으로 대단한 것이 있던가? 이 커버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를 상징한다는 말도 있다.
 새로 등장하는 Jan Schelhaas는 리버풀 출신이며, Sinclair 처럼 Caravan에 있었다. 그는 Caravan에 John의 사촌인 Dave Sinclair의 후임으로 가입한 것이다. Dave는 나중에 Breathless 투어때 캐멀에과 함께 연주하게 된다.
 트윈 키보드 시스템에 대해서 레이티머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훗날, 무대에서 그는 이러한 시스템을 보며 농담으로 이름을 Caramel로 바꾸자고 했었는데, 이게 왜 농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ye of the Storm"은 나중에 Happy the Man'의 third album에 다시 수록된다. 재미난 것은 이 앨범 퍼커션 파트에 제네시스의 필 콜린스가 참여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약간의 riffs 연주를 하는 것 같다, "Hymn to Her"에서의 riffs가 필 콜린스 연주가 아닐까 한다.
 영국 차트 45위까지 오른다.

Tech: LP: Decca TXS-R 137, Arista 4254, London L20P 1048, Released in
mid-October 1979
CD: Deram 820 614-2, One Way Records OW 29131.

1981 - Nude

City life
Nude
Drafted
Docks
Beached
Landscapes
Changing places
Pomp & circumstance
Please come home
Reflections
Captured
The homecoming
Lies
The last farewell
 The birthday cake
 Nude's return

Andrew Latimer: Guitars, Vocals, Flute, Koto & various Keyboards
Andy Ward: Drums & Percussion
Colin Bass: Bass & Vocals
Mel Collins: Flute, Piccolo & Saxophones
Duncan Mackay: Keyboards
Jan Schelhaas: Piano on "The Last Farewell"
Chris Green: Cello
Gasper Lawal: All Percussions on "Changing places"
Herbie Flowers: Tuba

자..이제 까막새가 Stationary Traveler와 함께, 가장 좋아하는 그들의 앨범
"Nude"의 소개시간입니다. 짜잔~~~
파플러한 감각에 적절한 캐멀특유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캐멀은 다시 많은 연주자들로 북적거리게 되는데, 많은 연주자들 각각이 뿔어대는
여러 악기가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초창기의 캐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콘셉트형식의 프로그레시브한 감각이
둔해졌다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음반임에는 틀림이 없다.
커버는 산을 배경으로 바다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바위위에 겁데기만 남겨진
남성정장의 그림이다. (타이틀대로라면 이승희가 나와야되는데....)
일부 한정판 LP는 더블 폴더로 제작되었다.
아마도 실화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2차대전 중 무인도에
버려진채 바깥 세상에는 관심을 두지않고 29년을 산 어느 일본병사의 이야기이다.
Susan Hoover라는 사람이 앨범의 콘셉트를 생각해냈고 가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Herbie Flowers는 존 윌리엄스(쥬라기 공원의 영화음악가 말고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 이끌던 그룹 SKY의 멤버였다.
(이 앨범에서는 까막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 Drafted가 들어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 라이브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서정적인 발라드죠.
물론 가사는 전혀 아니지만.....)

Tech: LP: Passport PB 6008, Decca SKL 5323, Released in January 1981.
MC: Passport PBC 6008
CD: London 810 880-2

1981 - Chameleon (Best of Camel)

Echoes
 Rhayader
 Rhayader goes to town
 Song within a song
 Remote romance
 Nude
 Drafted
 Lies
 Supertwister
 Uneven song
 Rainbow's end

그들의 베스트 음반이다. 커버는 카멜레온 모양의 그림자와 온통 흰색 칠 뿐이다. 까막새는 아직 구경도 못한 음반이고, 물론 살 생각도 전혀 없는 음반이다. LP로만 나와있고, 카탈로그에서 삭제되어버린 어떤 의미에선 캐멀팬들에게는 희귀 판이 되어버린 음반이다.

Tech: LP: Decca SKL 5325, Released in September 1981.

1982 - The Single Factor

No easy answer
 You are the one
 Heroes
 Selva
 Lullabye
 Sasquatch
 Manic
 Camelogue
 Today's goodbye
 A heart's desire
 End peace

Andy Latimer: Guitars, Piano, Vocals, Keyboards, Organ, Mellotron, Bass
 David Paton: Bass, Fretless Bass, Vocals
 Graham Jarvis: Drums
 Duncan Mackay: Prophet Synth
 Chris Rainbow: Backing Vocals, Lead on "A heart's desire" and "End piece"
 Francis Monkman: Harpsichord-Synclavier
 Anthony Phillips: Grand Piano, Organ, Classical and 12 Strings Guitar, Poly Moog, ARP 2600, Marimba
 Pete Bardens: Organ, Mini Moog on Sasquatch
 Hydne Bendall: Yamaha CS-80
 Tristian Fry: Glockenspeil
 Jack Emblow: Accordion

매우 파퓰러한 분위기의 앨범이라, 일부 팬들은 죽어라 싫어하는 앨범이다. 어떤 이들은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랑 비슷하다는 평도 하는데, 당연한 것이 공통분모가 두명이나 있다. 크리스 레인보우와 데이빗 패턴..... (크리스는 매우 듣기 좋은 미성의 소유자이지요. 이름도 이쁘고, 까막새가 영어학원 다닐때, 닉 네임을 크리스로 한게 이 사람 때문이라는 전설이.....) 커버는 회색과 파랑색의 컴퓨터합성된 얼굴그림이다. 레이티머인가? 뒷커버도 비슷한 형식이다.

일부 CD로 나온 것들은 흑백으로 대체된 것도 있다.

Susan Hoover가 전작에 이어 일부 가사에 참여했고, Sasquatch에서 바덴스가 참여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Fry와 Monkman은 전작에 참가했던 Flowers와 마찬가지로 SKY의 멤버였는데, 이 시기에 같은 프로듀서와 엔지니어 밑에서 두 그룹이 활동했기에 이런 조인트가 성사되었던 같다. (Tony Clark와 Haydn Bendall)

Anthony Phillips는 초기 제네시스의 멤버였다.

이 앨범은 Andy Ward가 빠진 첫 앨범인데, 결국 캐멀 오리지널 라인업에서 앤디 레이티머만 남게 된 셈이다.

Tech: LP: Passport PB 6013, Decca SKL 5328. Released on May 6th.
MC: Passport PBC 6013

1984 - Stationary Traveler

Pressure points
Refugee
Vopos
Cloak and dagger man
Stationary traveler
West Berlin
Fingertips
Missing
After words
Long goodbyes

Andy Latimer: 12 Strings, Acoustic, Classic and Electric Guitars, Flute,
Bass, Piano, PPG, Juno 60, Yamaha CS-60, Drumulator,
Pan Pipes, Vocals

Paul Burgess: Drums

Ton Scherpenzeel: Yamaha CS-80, Grand Piano, PPG, Prophet, Accordion, Juno 60

Hyden Bendall: PPG Voices, Fairlight

David Paton: Bass, Fretless Bass

Chris Rainbow: Vocals

Mel Collins: Saxophone

이제 그들의 최고걸작으로 손꼽히는 "Stationary Traveler"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찬사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앨범 수록곡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이 앨범에 대한 감상문들이 많으니 참조
하시길...)

이 앨범은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보다 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답다는 평가도
받고 있으며, 콘셉은 역시 Susan Hoover가 생각해냈다.

지금은 없어져버린 베를린 장벽에 대한 내용이다.

베스트 트랙은 역시 레이티머의 팬플룻 연주가 압권인 타이틀 트랙이다.

커버는 독일어 문구가 있는걸로 봐서 베를린으로 생각되는 거리에 여성이 서있는
흑백그림이다. 뒷커버는 같은 배경에 여성의 뒷모습이 그려져있다.

이너 자켓에도 같은 여성이 빌딩을 배경으로 서있다.

비디오 클립에서는 그림과 비슷한 여성이 괜히 여기저기 썰렁한 거리를 입김을
내뿜으며 서성거리는 그림이 연주모습과 번갈아가며 등장한다.

도전적인 오프닝곡과 국내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Long goodbyes"도 좋은
트랙이다.

전체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초창기때의 프로그레시브한 면은 상당히 빛바랬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너무 듣기에 편하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Tech: LP: Polydor/Metronome 821 504-1, Decca 5334 820 020, Decca SKL 5334.
(Released in March??)

MC: Polydor/Metronome 821 504-4

1985 - Pressure Points: Live in Concert

Pressure points
Drafted
Captured

Lies
 Sasquatch
 West Berlin
 Fingertips
 Wait
 Rhayader
 Rhayader goes to town

Andy Latimer: Lead Guitar and Vocals
 Colin Bass: Bass Guitar and Vocals
 Ton Scherpenzeel: Lead Keyboards
 Chris Rainbow: Vocals and Keyboards
 Richie Close: Keyboards
 Paul Burgess: Drums and Percussion
 guest appearances:
 Mel Collins: Sax on Fingertips
 Peter Bardens: Organ

캐멀의 두번째 라이브 음반으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의 노래들을 매우 훌륭한 연주로 들려주고 있다.
 어떤 노래들은 오히려 오리지널 앨범에 소개된 스튜디오 앨범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나 Fingertips같은 노래는 톤을 높게 부르기 때문에 한층 밝은 느낌을 주고 있다.
 자켓도 일상적인 그들의 촌스러운듯한 자켓에서 벗어나 빛속에서 떠있는듯한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다.
 뒷커버는 라이브의 사진이 들어있다.
 바덴스가 스노우 구즈의 두 노래에서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다.
 이 공연은 런던 Hammersmith Odeon에서 84년 5월 11일날 공연한 것을 편집한 것이며, 폴리그램을 통해 비디오로도 나와있고, 일본에서는 레이저 디스크로도 발매된 바있다.
 이 라이브 실황비디오에는 좀 더 많은 곡이 실려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이 공연은 디지털 녹음이 되었는데, 씨디는 AAD로 발매되었다는 것이다.
 LP로 등장후, CD재발매 과정에서 원본 디지털 테이프가 아닌 LP의 마스터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1장짜리 앨범이기에 공연중 일부곡만 소개된 것이 아쉬우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 유난히 많이 발매되는 캐멀의 ON THE ROAD 공식 부트랙 라이브 음반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다.
 앨범 발매를 전제로 한 탓이겠지만, 연주상황이나 음질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난다.

Tech: LP: Decca SKL 5338 (820 166-1). Released in November 1984.
 MC: Decca KSKC 5338
 CD: London 820 166-2, PolyGram 820166, Decca 5338

1985 The Collection

Aristillus
 Freefall
 Supertwister
 Spirit of the water
 Lunar sea
 Rhayader
 Rhayader goes to town
 The princes perdue
 The great marsh
 Drafted
 Captured
 Sasquatch
 Rain dances

Highways of the sun

또다른 콜렉션 음반이다.

Tech: LP: Castle CCSLP 116

CD: Castle Coomunications CCSCD 116

1985 - A Compact Compilation

Freefall
Lady Fantasy
 Encounter
 Smiles for you
 Lady fantasy
The Great marsh
Rhayader
Rhayader goes to town
The snow goose
Flight of the snow goose
Dunkirk
Song within a song
Lunar sea
First light
Metrognome
Rain dances

Mirage, The Snow Goose, Moonmadness 그리고 Rain Dances의 곡들을 편집한 음반이다. 새로운 버전이라던가 추가곡은 없다.

커버는 밤의 도시로 향하는 길목에 서있는 낙타가 그려져있다.

뒷커버에는 밴드 사진이 있는데, Ferguson의 모습은 보이지만, Sinclair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Tech: CD: Rhino R2-75900

1991 - Landscapes

편집음반

1992 - Dust and Dreams

Dust bowl
Go west
Dusted out
Mother road
Needles
Rose of Sharon
Milk n' honey
End of the line
Storm clouds
Cotton camp
Broken banks
Sheet rain
Whispers
Little rivers and little rose
Hopeless anger
Whispers in the rain

Andrew Latimer: Guitars, Flute, Keyboards, Vocals
 Colin Bass: Bass
 Ton Scherpenzeel: Keyboards
 Paul Burgess: Drums
 David Paton: Vocals
 Mae McKenna: Vocals
 Christopher Bock: Drums
 Don Harriss: Keyboards
 Neil Panton: Oboe
 Kim Venaas: Timps, Harmonica
 John Burton: French Horn

캐멀의 재등장을 알리는 음반으로, *Nude*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앨범이다.
 80년대에 발매된 앨범과는 유사한 느낌이지만, 초창기와는 완전히 모습을 달리
 하고 있다.

마지막 8곡은 연주곡이다.

커버는 어린 소년이 길 위에 서있는 흑백사진이며, 기존의 캐멀 자켓과는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포니 레이블을 통해 일본반이 많이 수입되어 있어서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다.

최근에 많이 수입되고 있는 공식 부트랙 라이브 중 하나인 "*Never let go (2CDs)*"
 의 두번째 디스크에 이 앨범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니, 라이브를 사는 것도
 괜찮은 생각일 듯하다.

게다가 이 음반의 경우 1장 가격으로 구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앨범의 콘셉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에서 따왔으며, 이들의 콘셉을
 계속 담당하고 있는 Susan Hoover에 의해 어레인지 되었다.

Susan은 몇곡의 가사에도 역시 참여하고 있다.

Tech: CD: CP-001CD

1993 - Camel on the Road 1972

Lady fantasy
 Six ate
 White rider
 God of light

Andy Latimer: (Guitar?)
 Peter Bardens: (Keyboards?)
 Andy Ward: (Drums?)
 David Ferguson: (Bass?)

캐멀 프로덕션에 의해 발매되고 있는 공식 부트랙 시리즈의 첫번째 작품이다.
 1기 라인업에 의한 작품들인데, 몇군데에 음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
 으로는 음질이 좋은 편이고, 커버는 낙타가 그려진 "공사 표지판"이다.

이 표지판은 그들의 *On the road* 시리즈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할 만 것은 캐멀의 앨범에 등장하는 낙타의 봉은 항상 1개 였는데
 이 앨범에는 두개이다. (*On the road 1982*에도 봉은 1이다.)

씨디로만 나와있다.

*God of Light*는 피터 바덴스의 두번째 솔로앨범 "*Write My Name in the Dust*"에
 수록된 곡이다.

몇가지 기술적인 조잡함이 눈에 띄는데, 이 앨범의 타이틀이 3개의 다른 것으로
 표기되고 있고, ("*Warning: Camel on the Road 1972*", "*Camel on the Road 1972*"
 , "*On the Road 1972*") "*God of light*"라는 제목이 커버에 쓰였는데, 속지에는
 "*God of light revisited*"라고 되어있다.

공식 FAQ에서는 이걸두고 "캐멀 프로덕션은 부트랙 만드는 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빈정거리고 있다.

Tech: CD: CP-003CD

1993 - Echoes: The Retrospective

CD1:

Never let go
 Freefall
 Lady Fantasy
 Encounter
 Smiles for you
 Lady Fantasy
 Rhayader
 Rhayader goes to town
 Song within a song
 Air born
 Lunar sea
 Unevensong
 Tell me
 Elke
 Skylines

CD2:

Breathless
 Echoes
 The sleeper
 Your love is stranger than mine
 Hymn to her
 Ice
 Drafted
 Lies
 Sasquach
 You are the one
 Refugee
 West Berlin
 Mother road
 Whispers in the rain

PolyGram/Deram 레코드에서 나온 그들의 앤솔로지 음반이다.

더블 씨디에 데뷔앨범부터 "Dust and dreams"까지 수록된 곡들이 모아져 있고, 오리지널 발매된 곡으로 구성되어있다. 라이브 곡은 하나도 없나는 이야기다. 커버는 Rain Dances의 반쪽으로 되어있다. (댄서가 오른쪽으로 훌쩍 뛰는 부분) Susan Hoover가 라이너 노트를 담당했다.

Tech: Deram 844 340-2

1993 - Never Let Go

CD1:

Never Let Go
 Earthrise
 Rhayader
 Rhayader goes to town
 Spirit of the water
 Unevensong
 Echoes
 Ice
 City life
 Drafted

CD2:

Dust and Dreams

Dust bowl
 Go west
 Dusted out
 Mother road
 Needles
 Rose of Sharon
 Milk n' honey
 End of the line
 Storm clouds
 Cotton camp
 Broken banks
 Sheet rain
 Whispers
 Little rivers and little rose
 Hopeless anger
 Whispers in the rain
 Sasquatch
 Lady Fantasy

Andy Latimer: Guitars, flute, keyboards, vocals
 Colin Bass: Bass, bass pedals, keyboards, vocals
 Mickey Simmonds: Keyboards
 Paul Burgess: Drums, octopad, bells, tambourine

앞서 "Dust and dreams"에서 소개한 바 있던 그들의 두번째 공식 라이브 앨범이다.
 두장짜리로 네덜란드의 Enschede에서 1992년 8월 5일에 가졌던 공연을 통째로 퍼다 박았다.
 2시간이 넘는 훌륭한 연주와 좋은 음질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반이다. (디스크 1이 50분대이고, 디스크 2가 1시간 10분대입니다.)
 커버는 레이티머가 스테이지 위에서 기타를 맨 채, 키보드를 연주하는 모습이 그늘지게 표현되어 있다.

Tech: CD: CP-004CD

 1996? - On the road 1982

Sasquatch
 Highways of the sun
 Hymn to her
 Neon magic
 You are the one
 Drafted
 Lies
 Captured
 A heart's desire/ End peace
 Heroes
 Who we are
 Manic
 Wait
 Never let go

Andy Latimer: Guitars, vocals
 David Paton : Bass, vocals
 Chris Rainbow: Vocals, keyboards
 Stuart Tosh: Drums, backing vocals
 Kit Watkins: Keyboards
 Andy Dalby: Back-up guitar

<< 이 앨범부터 공식 FAQ에 설명이 없기에 제 CD를 참고하였습니다. >>

작년에 발매된 걸로 알고있는 캐멀의 공식 라이브 앨범이다.

적당한 대중성과 음악성이 조화된 중기의 노래들로 채워져있으며, 괜찮은 음질을 들려준다.

커버는 매우 단순한 은색 바탕위에 붕이 하나짜리 낙타를 둘러싼 파랑색 공사표지 판이다.

속지에는 멤버들의 사진이 나와있고, 주목할만한 것은 레이티머가 예의 그 멍청한 표정으로 바닥에 나자빠져 있는 사진이다.

캐멀 결성 10주년 기념공연으로 네덜란드 Den Haag의 Congressgebouw에서 82년 6월 13일에 공연한 것을 녹음한 것이다.

68분에 이르는 러닝타임으로, 원래 이 공연은 녹음 테이프를 분실했었는데 어느 라디오 방송국에서 중계방송한 것을 찾아내서 엔지니어링을 해서 발매한 것이다.

국내에 라이선스화 되어 나와있다.

이 앨범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Chris Rainbow의 노래를 맘껏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6곡에서 Chris가 리드 보컬을 맡고 있다.

1996 - Harbour of tears

Irish Air
 Irish Air (Instrumental reprise)
 Harbour of tears
 Cobh
 Send home the slates
 Under the moon
 Watching the bobbins
 Generations
 Eyes of Ireland
 Running from paradise
 End of the day
 Coming of age
 The hour candle (A song for my father)

Andy Latimer: Guitars, flute, keyboards, vocals, penny whistles

Colin Bass: Bass, vocals

Mickey Simmonds: Keyboards

David Paton: Bass, vocals

Mae McKenna: a capella vocal

John Xepoleas: drums

Neil Panton: oboe, soprano sax, harmonium

John Burton: french horn

Barry Phillips: cello

Karen Bentley: violin

Anita Stoneham: violin

"Dust and dreams" 이후 오래간만에 선보이는 캐멀의 최근작이다.

썩어도 준치라고 혹자들은 이 앨범을 캐멀이 갈때까지 갔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레시브 록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파퓰러해진 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국적인 아일랜드의 보컬로 시작되는 Irish Air에서 이들이 조금은 변했다는 느낌

이 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캐멀의 맛은 아직도 확실히 깔려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현악기의 사용으로 매우 클래식컬하며 안정된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으나

23분이 넘는 마지막 대곡 The hour candle에서는 다소 방만한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하다.

Send home slate같은 노래는 약간의 뽕짝맛도 나는 독특한 트랙이다.

자켓은 새로운 로고와 함께 초록 바탕위에 테두리 선에 낡은 사진이 들어있는데,

항구를 떠나는 가족의 흑백사진을 배경으로 선박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다.

왼쪽 아래에는 여신상이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뒷커버의 설명에 보면 소재가 되는 Cobh 항구는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항구로, 불안한 운명을 가진채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아일랜드의 마지막 풍경이라고 한다.

역시 Susan Hoover가 작사에 참여하고 것으로 봐 앨범컨셉에도 참여한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90년대의 캐멀을 이해하는데 꼭 들어보아야 할 앨범이다.

싱글 디스코그래피

Curiosity/Never Let Go - MUS 1177 Released January 1973
Flight of the Snow Goose/Rhayader - F-R 13581 Released May 16th, 1975
Highways of the Sun (edit)/Tell Me - F-R 13729, Released September 23rd 1977
Remote Romance/Rainbow's End, Tell me - F-R 13879, Rel: UK, October 26th 1979
Your Love is Stranger than Mine/Neon Magic - F-R 13871, Rel: February 29th,
1980

이 밖에 "Stationary Traveler"의 오프닝 곡 "Pressure Points"의 리믹스 롱 버전
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꼭 들어보고 싶다. 하지만, 구하기는 화성에 생명체 찾기
만큼이나 힘들지 않을까?

비디오 디스코그래피

Pressure Points

Pressure points
Refugee
Vopos
Stationary traveler
West Berlin
Fingertips
Sasquatch
Wait
Cloak and dagger man
Afterwords
Long goodbyes
The Snow Goose (excerpts)
Lady Fantasy

1984년 London의 Hammersmith에서 쫓겨진 공연실황으로 동명 타이틀 CD 비디오
버전이다. 물론 더 많은 노래가 수록되어있고 90분의 러닝타임이다.

"Stationary Traveler"가 CD에 빠져서 불만이었는데, 비디오에는 들어가 있다.

Tech: Available on LaserDisc. Used to be available on PolyGram Music Video
Cassette. Now available on Video Cassette from Camel Productions.

Total Pressure

캐멀 프로덕션의 첫번째 비디오 부트랙이다. (캐멀 프로덕션은 부트랙만 만들기로
작심한건가? 쩌....)

위의 라이브를 다른 시점에서 녹화한 것이다.

(부트랙이니 어느 누군가 관중이 했으리라....대단한 녀석)

완전한 라이브의 모습이 다 들어가있고, 편집, 더빙, 믹스같은 것이 전혀 없는
진짜 라이브 실황이라 하겠다.

Bootlegs - !!! DON'T BUY BOOTLEGS! Support the artists !!!

-----> 이런 메시지가 FAQ에 첨가되어 있더군요.

1992 - Needless in the Camel's Eye

God of Light Revisited
 The White Rider
 Lady Fantasy
 Arubaluba
 Excerpts form "The Snow Goose"

이태리제 부트랙이다.

부트랙이지만, 보컬이 약간 약하게 들리는 것 빼고는 음질이 뛰어나다.

커버는 무거운 짐을 지고는 힘겹게 두건쓴 사람에게 의해 평원을 걸어가는 낙타의 컬러사진이다.

뒷커버에는 두 노인이 키스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앨범 제목이 그런가보다...)

라인업에 대한 기술은 되어있지 않다.

Tech: CD: Make Me Smile MMS 0592

 피터 바덴스의 솔로앨범들 ..

Peter Bardens

*** 캐멀 가입 전

1970 - The Answer

The Answer
 Don't goof with a spookie
 I can't remember
 I don't want to go home
 Let's get it on
 Homage to the God of Light

Peter Bardens: Keyboards, Vocals

Steve Ellis: Vocal

Andy Gee: Guitar

Reg Isadore: Drums

Linda Lewis: Vocal

Alan Marshall: Vocal, Percussion

Bruce Thomas: Bass

David Wooley: Vocal

"Homage to the God of Light"가 "God of Light"의 원곡이다.

Tech: LP: Verve 3088, MGM ??, Transatlantic Records TRA 222, Released
 September 1970

1971 - Peter Bardens

Tech: LP: Transatlantic Records TRA 243, Released July 1971

캐멀의 재발매 씨디 라이너 노트를 담당했던 John Tracy에 따르면 Peter Bardens
 캐멀 가입전에 위와 같은 두장의 솔로앨범만을 발표했다고 한다.

1971 - Write My Name in Dust

North end road
 Write my name in the dust
 Down so long

Sweet honey wine
Tear down the wall
Simple song
My house
Feeling hugh
Blueser

Peter Bardens: Keyboards, Vocals
Victor Brox: Violin, Vocals
Andy Gee: Guitar
Reg Isadore: Drums
John Owen: Bass
Maxine Offla: Vocal
Linda Lewis: Vocal
Judy Powell: Vocal
Liza Strike: Vocal
Anita Pollinger: Vocal

Tech: LP: Verve 3091

1976 Vintage 69

The Answer
Don't Goof with a spookie
I can't remember
I don't want to go home
Write my name in the dust
Homage to the god of light

Peter Bardens: Keyboards, Vocals
Steve Ellis: Vocal
Andy Gee: Guitar
Peter Green: Guitar
Reg Isadore: Drums
Linda Lewis: Vocal
Alan Marshall: Vocal, Percussion
Bruce Thomas: Bass
David Wooley: Vocal
John Owen: Bass
Linda Lewis: Vocal
Judith Powell: Vocal
Liza Strinke: Vocal
Anita Pollinger: Vocal

바덴스의 흑백사진이 커버에 있다.
이 앨범은 바덴스의 첫번째 솔로앨범에다가 Write My Name in the Dust에서
발췌한 한곡이 추가되어 있다.

Tect: LP: Transatlantic TRA SAM 36

*** कै말 탈퇴후

1979 Heart to Heart

Julia
Doing the crab
Slipstream
Raining all over the world
Jinxed
After dark
Slow motion

Tune for Des
Heart to heart

Peter Bardens: Keyboards, Vocals
Mel Collins: Sax
Gus Isadore: Guitar, Vocals
Chris Karan: Percussion
Stan Scrivener: Bass
Peter Shade: Backing Vocals
Peter Van Hooke: Drums

Tech: LP: Arista 1108

1987 Seen One Earth

Seascape
Man Alive
Seen one earth
Home thoughts
Prelude
In Dreams
Stargate
Many happy returns

Peter Bardens: Synth (...?)
Adrian Dessent: Guitar
Honey Hylton: Vocals
Neil Lockwood: Vocals
Peter Van Hooke: Drums

우주탐사와 우주인(외계인 말구...)에 대한 책 "The Right Stuff"에서 콘셉을
빌려왔다고 한다.
빌보드 148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Tech: LP: Cinema ST-12555, Capitol 46868
MC: Cinema C4-46868, C4-12555
CD: Capitol 46868, Atlantic CDP7458682

1988 Speed of Light

Westward ho!
Black elk
Gold
This could be paradise
Afterthought
Speed of light
Whisper in the wind
Heartland
Columbine
Gold (reprise)

Peter Bardens: Keyboards
Mick Fleetwood: Drums
David Foster: Bass
Russell Gilbrook: Drums
Honey Hylton: Vocals
Neil Lockwood: Vocals
Neale Neywood: Guitar
Neil Nicholas: Vocals

Gold는 싱글씨디로 발매되었다. (Atlantic DPRO79360)

Tech: MC: Cinema C4-48967
 CD: Capitol 48967, Cinema C2-48967

1991 Watercolors

그의 솔로앨범 베스트 앨범이다.

Tech: MC: Miramar MPC-4001
 CD: Miramar MPCD-4001

Peter Bardens는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가 프로듀스한 Keats의 셀프 타이틀 앨범에도 참가했다.

1984 Keats

Heaven knows
 Tragedy
 Fight to win
 Walking on ice
 How can you walk away
 Turn your heart around
 Avalanche
 Give it up
 Ask no questions
 Night full of voices

David Paton: Bass
 Ian Bairnson: Guitars
 Stuart Elliot: Drums
 Chris Rainbow: Vocals
 Peter Bardens: Keyboards (?)

휴~~~~~

이로써 캐멀의 완벽 디스코그래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캐멀의 음반들을 분석하다 보니, 제가 가진게 생각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몇장은 더 구해야한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특히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같은 앨범이 더욱 그렇습니다.
 음악은 들을수록 새로운 것을 원하게 마련이겠죠.

아무튼 기나긴 여정을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모르는 정보를 아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좋겠네요.

캐멀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자료로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병규, gama...@hitel.net, 98.5]

CAMEL FAQ

CAMEL Frequently Asked Questions 한국어판 Ver 1.0

=====

COPYLEFT. gamaksae, 1998

작성 : Ofir Zwebner
 번역 : 김병규 (gamaksae)
 E-MAIL : gama...@hitel.net

-----ooO ^.^ Ooo-----

본 번역물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귀속되어봐야 땀 한푼 수입이 없을 것이 뻔하므로 만천하에 공개하는 바이며, 단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다른 곳에 퍼다 올릴때 만큼은 번역자의 이름 석자만이라도 꼭사리로 같이 꺼주는 것이다. 캐멀의 Complete Collection 일보직전에 처한 작금에 생각해 보는데, 처음으로 캐멀의 Stationary Traveller LP를 구입하게 되는데 정신적 도움을 주었던 고딩어 시절의 김모양에게 이 글을 바치는 바이다. 참고로,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려 노력했지만 입이 간질 간질한 관계로 추가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사견도 일부 포함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며, 개인적인 추가는 () 속에 집어 넣었다.

1. 언제 어디서 캐멀은 처음 결성되었는가?

Andrew Laitimer, Andy Ward와 Doug Ferguson이 1971년 8월 20일에 North London의 Hampstead에서 Peter Bardens를 만나다. (어라~ 내 돌날이네...) 그들의 첫번째 공연은 71년 10월 8일에 북 아일랜드의 수도인 Belfast에서 "On"이라는 그룹명으로 가진 것이며, 이 공연은 피터 바덴스의 Transatlantic 레코드사와의 계약에 의한 의무적으로 펼친 것이었다고 한다. "캐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71년 12월 4일 Waltham Forest 공과대학에서 Wishbone Ash의 서포터로서 공연을 한 것이었다.

2. 누가 캐멀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며, 왜 "낙타"인가?

멤버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빠가사리...) 그들은 매우 여러번 이름을 바꾸었으며 캐멀이라는 것은 단지 바꾸다 바꾸다 지친 마지막에 선택된 이름이다. Mirage 뉴스레터에서는 바덴스가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는 믿을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일부에서는 캐멀 담배가 스폰서로 나섰던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도 있는데, 그럴 만하게 앨범 재킷 등에서 담배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앤디 레이티머는 이 가설을 부인했다.)

3. 어떤 오리지널 멤버가 지금까지 재적해 있는가?

오리지널 라인업에서 현재 재적해 있는 인물은 Andy Latimer 뿐이다. (위대한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음악적 색깔이 비슷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리더, 알란 파슨스의 몰락에 비교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다.) 창단멤버는 약 5년동안 4장의 스튜디오 앨범을 발표할때까지 지속되는데, Bass를 연주하던 Doug Ferguson이 좀 더 재즈적인 느낌의 소리를 추구하던 캐멀의 사운드에 만족하지 못하고 76년에 팀을 떠난 것이 첫번째 탈퇴가 된다. Peter Bardens는 솔로 활동을 위해 78년에 팀을 탈퇴한다. (일부 골수 아트록 매니아들은 이 시기를 캐멀의 타락시점으로 잡기도 한다.) 이후 Bardens는 "Single Factor" 앨범의 한 트랙에 게스트로 참가하며 "Pressure Points" 라이브에서도 우정출연한 바 있다. 오리지널 드러머 Andy Ward는 82년에 탈퇴한다. 이로써 오리지널 멤버는 앤디만 남게 되는 것이다.

4. 왜 Andy Ward는 "Nude" 앨범 이후 자리를 비우는가?

여러해 동안, 공식적인 이유는 "Single Factor" 라이너 노트에서 언급된대로 그의 손목 부상때문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다. 91년에 Q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Ward는 그 진실을 밝히는데, Ward는 그가 처했던 중압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알콜중독과 손목절단으로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이후 그는 자신을 극복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캐멀같은 활동적인 그룹에서의 연주는 그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었고, 결국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음악을 나름대

로 표현할 수 있는 다소 조용한 음악을 하는 그룹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다시는 캐멀의 멤버로서는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지키기 보다는 발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캐멀 프로덕션은 공식적으로 확인시킨 바 있다.

5. 그 밖에 다른 고정적인 라인업은 없었나?

캐멀의 라인업은 77년 이후로 부단히 바뀌게 된다.

77년 라인업에는 Mel Collins와 Richard Sinclair가 고정적인 라인업으로 참가
하지만, "Rain dances"와 "Breathless" 2장의 스튜디오 앨범과 그들의 첫번째
라이브 레코드인 "A live record"의 4개의 트랙에만 참가하고 또다시 바뀌게
된다. 다만 Mel Collins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라인업은 아니지만 84년에 발매된
라이브 앨범 "Pressure points"까지 거의 모든 앨범에 게스트로서 참가한다.
Colin Bass는 비록 "Single Factor"와 "Stationary Traveller" 앨범에는 참가
하지 않았지만 79년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 앨범부터 팀에 고정적인
라인 업으로 참가한다.

Susan Hoover는 82년 "Nude" 앨범부터 작사가와 앨범 콘셉 담당으로 참가하였는
데, 그녀는 앤디 레이티머의 아내가 된다.

6.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캐멀에서 연주를 하였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캐멀을 거쳐간다. 더 자세한 것을 보시려면 멤버 리스트
항목을 참고하길 바란다.

(하이텔에선 li gamaksae, 나우에선 li 줄리앙하시면 캐멀의 역사가 짝르륵
나옵니다. 그 글들을 참고하시길.....)

7. Bardens, Ward, Ferguson. 애네들은 지금 뭘하고 살까?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만..... 답변이 그지 발싸게 같군요. 나중에 찾아보아
겠군요. 이 부분은 원문을 그냥 씁니다....^^)

The location listed in the previous answer should answer this, but you can
also check out Members Section in the Discography and FAQ site.

8. 왜 시간이 꽤 흐르는 동안, 앤디 레이티머는 "캐멀"이라는 이름을 고수했는가?

앤디는 언젠가 한번 "캐멀"이라는 이름을 버릴까 했었는데, 팬들이 그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Bardens 탈퇴 이후의 캐멀은 앤디 레이
티머의 솔로 프로젝트 그룹으로까지 몰아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9. "밴드"로서의 캐멀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Mickey Simmonds는 "Harbour of tear" 앨범에 어느 정도 기여했나?

참여한 뮤지션들은 그들의 지울 수 없는 음악적 낙인을 캐멀의 사운드와 음악적
감성에 각인시켰다. 특히 Collin Bass의 수년간 멤버로서의 역할은 확실했다.

Mickey Simmonds의 기여는 매우 큰 기대를 주었지만, 결국 그는 시간이 없었다.

10. 1985년과 1991년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레이티머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캐멀은 그들의 첫번째 매니저였던 Geoff Jukes로부터 커미션 문제로 고소를 당했
던 것이다. 유일한 창단멤버로서 레이티머는 1982년부터 87년까지 이러한 일들을
책임져야만 했다.

그리고, 그때 Susan Hoover는 캐멀의 전작 앨범들의 저작권료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에 레이티머는 Gama 레코드사 (Geoff Jukes와 Max Hole의
레코드사)를 고소하게 된 것이다.

레이티머는 이 두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하게 되지만, 경제적인 이득은 전혀 얻지 못했다.

그 후 1988년 앤디 레이티머와 그의 아내 수잔 후버는 미국으로 가게 된다.

앨범 "Dust and dreams"는 85년 말쭙 착상을 했는데, 레이티머는 이 앨범을 제작할 레코드사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후버와 레이티머는 캐멀 프로덕션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91년 4월에 오리지널 콘셉에서 2번째 파트를 완전히 다시 고쳐서 앨범을 발매하게 된다.

사실상 "Dust and dreams"는 영국, 캘리포니아, 네덜란드 (Ton Scherpenzeel가 사는)에서 녹음되었다.

결국 이 시기에는 새로운 앨범은 선보이지 못하고, 85년부터 91년 사이에 무려 4장의 편집음반이 등장하는 헤프닝이 연출되는 것이다.

11. 캐멀의 미발표 트랙이 있는가?

알려진 바로는 한 곡이 있다.

"River man"이라고 불리우는 곡이다.

이 곡은 헤르만 헷세의 Siddhartha란 책에 기초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한 젊은이가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 모험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가 자신의 영혼을 찾은 곳은 처음 영혼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장소였다라는 스토리다. (원 소리지 알겠수? 파랑새와 비슷한 콘셉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곡은 언젠가 공식 트랙으로 선보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12. 앤디 레이티머가 캐멀 이외의 음악을 만든 적이 있는가?

레이티머는 몇몇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78년에 레이티머는 전 동료였던 Doug Ferguson의 밴드 Headwaiter의 셀프 타이틀 앨범의 몇몇 트랙에 참가했고, '단순히 재미로' 그들과 함께 네덜란드 투어를 가진 바 있다.

또한, 역시 전 동료였던 피터 바덴스의 95년 "Big Sky" 앨범에 수록된 'On a roll'이란 노래에서 그의 백 보컬을 들을 수 있다.

Ton Scherpenzeel과의 합작으로 10곡 정도의 노래를 만들기도 했지만, 레코딩된 적은 없다. 앞으로도 이 둘의 합작은 Ton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이 적다.

BBC 방송국은 몇몇 캐멀의 음악을 쓴 적이 있는데, 아직도 텔레비전을 위한 작곡을 해주길 바라지만 아직까지는 발표된 것이 없다.

Antony Phillips와 87년에 몇몇 작품을 같이 만들기도 했다.

레이티머는 역시 Dennis Quinn과 함께 88년에 Philips의 앨범제작을 도와준 일이 있다. 하지만, 서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T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와 다시 공동 작품을 만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레이티머는 또한 Francis Monkman의 앨범 "Dweller on the Threshold"의 몇몇 트랙에도 참여하였고, Greenpeace 앨범에서는 Manfred Mann 밴드의 Chris Thompson, Hazel O'Connor와 함께 싱글을 만들었다.

13. 왜 캐멀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주로 캐멀의 골수팬들 사이에서 제기되곤 한다.

어떻게 이토록 환타스틱한 프로그레시브 그룹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물며 프로그레시브 록 팬들 사이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내 일부 아트록 매니아들은 캐멀이 너무 상업적인 냄새가 난다거나 또는 팝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분위기다. 명반임을 자처하며 90년대 이후 국내에 소개된 음반들중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잖은가? 프로그레시브 록은 결코 컬트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KAYAK 같은 경우도 대단히 뛰어난 그룹이라며 칭송하길래 들어보았지만 결국 캐멀의 아류에 불과했다. 초보자들이 YES나 ELP, GENESIS 같은 밴드들 보다 이태리 밴드들을 먼저 듣게 되는 풍토는 분명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것은 아마도 미스테리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캐멀의 음반은 무디 블루스나 캐러반 같은 밴드들의 음반을 출판했던 DERAM 레이블에 의해 배급되었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레시브 밴드들을 보유

했던 EMI나 Charisma, Virgin 같은 레이블에 비해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캐멀은 상업적인 음악을 만드는 것을 그들의 방향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레코드 회사는 그들에게 강요를 하였고, 결국 밴드의 입장에서는 결코 차트에서 인기를 끌만한 곡이 아닌 싱글들을 회사측에서는 발매하였다. 이런 히트곡을 만들려는 의도는 앤디 레이티머 자신은 아직까지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Single factor" 앨범에서 가장 명백히 드러난다.

(덕분에 Single factor는 Stationary Traveller와 함께 누구나 가장 친숙히 들을 수 있는 다소 팝적인 음반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형편없는 쓰레기는 결코 아니다.)

또한 상업적인 성공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캐멀은 여러 해동안 훌륭한 투어를 해냈고, 91년에 새롭게 팀을 정비하면서 독립 레이블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음반발매를 했다.

캐멀은 팬들과의 개별적인 접촉과 몇년에 한번씩 좀 더 나아지는 앨범들을 발매하는 것에 더욱 만족하는듯하다.

캐멀에게는 물론 팬들에게도 이것이 가장 필요한 성공이 아닐까?

14. 어떤 앨범이 가장 성공적이었나?

"The Snow Goose" 앨범은 골드 레코드를 탔고, 아직도 잘 팔리고 있다.

캐멀 프로덕션이 발매한 것중에서는 Dust and dreams가 가장 잘 팔렸다.

물론 가장 먼저 발매된 것이라는 이유도 불건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Harbour of tears" 앨범도 예상보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역시 단연코 "Stationary traveller" 앨범이 가장 성공적인 앨범이었다. 가장 먼저 국내에 소개된 음반이기도 하다. 한가지 재미난 사실은

86년 당시 전영혁의 FM 방송을 통해 이 음반이 소개되었을때의 열렬한 지지와는 대조적으로 요즘에는 캐멀의 인기영합을 위한 음반이라도 매도되기도 한다.)

15. 캐멀이 히트 싱글을 낸 적이 있나?

한두번 정도는 명백히 히트 싱글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레이티머는 히트 싱글을 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싱글발매를 원하는 레코드 사의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한다.

16. 어떤 곡이 가장 인기있는 캐멀의 노래인가?

이것은 이렇게 따져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Rhayarder와 Rhayader Goes to Town는 3장의 라이브 앨범과 4장의 편집앨범에 수록되어 있고, 가끔 라디오 방송에서 리퀘스트 되곤 한다. 그러므로, 이 두 노래가 그들의 가장 인기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다.

가장 인기있는 라이브 노래는 Never let go일 것이다.

이 노래는 3장의 라이브 앨범과 한장의 편집앨범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라이브 앨범의 타이틀로도 쓰였다.)

또한 Lady Fantasy와 Sasquatch 역시 편집앨범에 잘 수록되는 노래이다.

Freefall, A Song Within a Song, Echoes, Drafted, Lies 같은 노래는 편집앨범과 컬렉션 앨범에 잘 수록되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Drafted는 매우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17. 캐멀 프로덕션이 뭐지?

캐멀 프로덕션은 수잔 후버와 앤디 레이티머가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독립회사이다.

8번 항목에 쓰여있듯이, "Dust and dreams" 앨범의 발매를 위해서 몇년동안 레코드 사들을 찾아보지만 결국 앨범을 발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레코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캐멀 프로덕션은 캐멀만을 위해 존재하는 레코드 회사이다.

(캐멀같은 그룹조차도 소속 레코드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쩍.)

18. 캐멀의 노래를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인가? 회사는 잘 되는건가?

 캐멀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즉, 새 앨범의 판매라던가 지난 앨범들의 판매, 라이브와 상품판매를 통한 수입-은 캐멀 프로덕션으로 들어가게 된다. 수잔 후버는 음반제작을 지속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다짐한다.

19. 새로 나올 앨범이 있는가?

 그렇다. 레이티머는 이미 새로운 앨범을 위한 작곡에 돌입했다. 이것과는 별도로 Nude 투어를 녹음한 "Camel on the Road 1981"이 나올 것이며, 캐멀 프로덕션은 멤버들의 인터뷰와 포함된 비디오 앤솔로지를 발매 계획중이다. 새롭게 펼치는 공연의 몇몇 장면도 수록될 예정이다. (Road 1981 앨범은 이미 발매되었고, 국내에도 라이선스로 나와있다. 아래 게시물을 통해 전해드린 그들의 또다른 더블 라이브 앨범과 비디오가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앤솔로지 비디오가 아래의 라이브 비디오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정보가 없다.)

20. 캐멀 초보자들에게는 어떤 앨범을 추천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Camelogue의 메일링 리스트를 관찰해 보면, 캐멀의 팬들은 매우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 여기에 여러 밴드들을 언급하겠다. 이것은 캐멀의 음악이 그들과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음악적인 분위기로써 제시 하는 것이다.

- o 콘셉트 앨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The Snow Goose, Nude, Stationary Traveller, Dust and Dreams, Harbour of Tears.
 이 앨범들은 모두 소설이나 단편을 기초로 만든 앨범들이다. (특히 재미난 앨범은 Nude인데, 태평양 전쟁시 한 무인도에 고립되었던 일본 병사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몇십년을 살아왔다는 실화에 근거한 컨셉이다.)
- o 당신이 70년대 중반의 Genesis나 Pink floyd같은 심포닉 프로그레시브 록에 관심이 많다면, 75년작 Snow Goose와 76년작 Moonmadness가 알맞을 것이다.
- o Alan Parsons Project를 좋아하는가? 그들의 대부분의 앨범과 사운드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Stionary Traveller와 The Single Factor 앨범은 흡사하다.
- o Nektar나 Jethro Tull의 일부 연주곡 또는 Focus 같은 분위기의 오르간과 기타의 상호조화를 이루는 분위기의 밴드들을 좋아한다면, Mirage 앨범과 그들의 데뷔 앨범 Camel을 추천한다.
 이 앨범들의 최근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I Can See Your House 앨범에서 몇 트랙이 보너스로 들어가 있다.
- o Caravan이나 Hatfield and the North를 좋아한다면 Richard Sinclair의 재즈적인 존재감이 느껴지는 Rain Dances를 추천한다. 더불어 Breathless 앨범도 좋다. 만약 위에 언급한 두 밴드의 악기의 상호조화로운 연주를 좋아한다면 Camel, Mirage, The Snow Goose 그리고 Moonmadness 앨범도 괜찮을 것이다.
- o 인상적인 기타 연주를 좋아한다면 Moonmadness, Breathless,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 Nude, Dust and Dreams, 그리고 더블 라이브 앨범 Never Let Go를 추천한다.
- o 오케스트레이션이 들어간 노래를 좋아한다면, The Snow Goose, Nude,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 Harbour of Tears가 좋을 것이다.
- o Clannad와 Enya를 좋아하는가? 아일랜드의 음악에 기초한 Harbour of Tears가 만족스러울 것이다.
- o 라이브 레코드 :

"Never Let Go" 더블 라이브 앨범이 사운드의 품질이나 뮤지션들의 테크닉의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것은 프로그레시브 록의 뛰어난 라이브 앨범으로 손꼽아도 부족하지 않으며, 만약 당신이 캐멀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이 음반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Pressure points 라이브도 매우 우수한 수작이다. 단 시간이 짧은게 흠.)

- o 가장 논란꺼리가 많은 앨범 :
Breathless, Stationary Traveller
- o Best Video : 캐멀의 현재 발매된 비디오는 단 2종에 불과하다.
1시간 정도의 러닝 타임을 가진 Total Pressure를 추천한다.
화면과 음질도 괜찮은 편이다. 물론 이것은 또다른 비디오와 비교할때 약간 더 나은 정도의 수준이다.
- o 콜렉션 앨범으로 산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A Compact compilation을 추천한다. 이 음반은 74년부터 77년 까지의 밴드의 음악을 모은 좋은 컴필레이션이다.
Echoes는 좀 더 다양한 시기의 음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콜렉션보다는 정식 릴리즈된 음반을 구입하는 것을 권한다.
- o (개인적인 추천 : 가볍게 시작하려는 사람은 Stationary Traveller나 Single Factor로 시작하면 좋다. 그리고, 좀 진지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Snow Goose를, 서정적인 분위기를 원한다면 Harbour of tears를 추천한다.)

21. "캐멀"이라는 담배회사의 이름과 로고와는 무슨 상관인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앞에서 밝혔듯.....)
Mirage 앨범의 영국발매본의 재킷은 캐멀 담배갑을 모방한 바 있고, 캐멀 프로덕션의 낙타 로고는 담배회사의 것과 유사해 보이긴 한다.

22. 왜 종종 Caravan이 캐멀과 함께 거론되는가?

비록 캐멀은 켄터베리 밴드는 아니었지만, 꽤 오랫동안 Soft Machine, Caravan, Gong, Hatfield and the North, National Health 등과 같은 음악 필드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오곤 했다. 왜냐하면 캐멀의 초기 음악적 스타일이 무언가 그들과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7년에 Richard Sinclair (전 Caravan, Hatfield and the North의 멤버)가 베이스 주자로 라인업에 참여한 바 있고, 78년에 Jan Schelhaas와 Dave Sinclair (두 명 모두 캐러반의 키보드 연주자)가 밴드에 참가하여 같이 라이브 투어를 가진 바도 있다. 이러한 캐러반과의 연계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캐멀은 또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와도 매우 연관이 있는데, 그 음악적 색깔도 그러하려니와 알란 파슨스의 객원멤버들인 David Paton, Chris Rainbow, Stuart Tosh 등이 캐멀의 정식앨범에 참가하거나 라이브에 참가한 바 있다.
(특히 Chris Rainbow의 참가는 보컬의 능력면에서 한 수 아래임을 부정할 수 없는 레이티머의 한계를 극복해주고 있다.)

끝맺으며.....

ELP 보다 Latte E Miele나 Triumvirat가 더 높게 평가되는 우리네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이런 기형적인 국내 프로그레시브 록 문화는 조작에 의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마치 명반보다는 희귀음반에 더 집착하려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이런 풍토 속에 캐멀도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룹 중 하나라 아쉽기만 하다.
팝적인 경향이라.....
프로그레시브 록 안에서도 팝적인 경향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어쩌면 팝적인 경향이라는 말은 "서정적인 경향"의 확대해석은 아닐까?
좀 더 넓고 유연성있는 음악듣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필자는 캐멀의 경우에 있어서 여실히 느끼고 있다.

Yahoo! Groups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ahoo! Groups을 이용하시려면, 야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http://docs.yahoo.com/info/terms/>